

5-1-2013

미주 한인 교회 청중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설교

Young Uk Kim 김영욱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김영욱, "미주 한인 교회 청중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설교."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3.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TO CONGREGATIONS OF KOREAN-AMERICAN CHURCHES

written by

YOUNG U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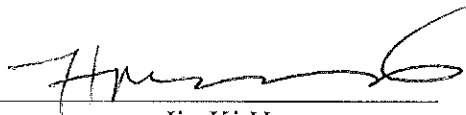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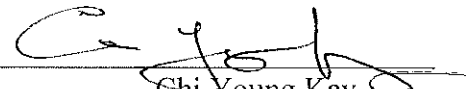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in Ki Hwang


Chi-Young Kay

May 1, 2013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TO
CONGREGATIONS OF
KOREAN-AMERICAN CHURCHES**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 UK KIM

MAY 2013

미주 한인 교회 청중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설교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황진기 교수

김영욱

2013년 5월

Abstract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to Congregations of Korean-American Churches

Young Uk Kim

Doctor of Ministry

201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ays to most effectively deliver the gospel to modern audiences who are familiar with the visual media, particularly the electronic culture. After presenting Paul Scott Wilson's new four-page sermon form and its effectiveness, the writer analyses five sample sermons in comparison to the proclamation of Jesus and the four-page sermon principles.

Chapter 1 discusses the motivation and objectives of the paper. Chapter 2 presents bibl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of the kingdom of God, with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ncepts for the kingdom of God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 chapter also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kingdom of God and the apostles as well as the impact of Jesus' kingdom of God on the proclamation of the apostles.

Chapter 3 presents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four-page sermon along with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is format and the traditional sermon format. Chapter 4 analyzes five selected sample sermon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eaching composition and proclamation method. It also discusses the biblical basis and theological position of the kingdom of God.

Chapter 5 presents the practice of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utilizing the four-page sermon of Paul Scott Wilson as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American church's audience to encounter the gospel more specifically and practically in their lives. Chapter 6 concludes by summarizing the paper and proposes the most desirable and effective sermon form in this day and age.

Theological Mentors: Jin Ki Hwang, PhD
 Chi Young Kay, PhD

현 사

이 논문을 기도와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준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바칩니다.

감사의 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신 김세윤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논문을 지도해 주신 주심 황진기 박사님과 부심이신 계지영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기도와 함께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빠의 논문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준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로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러닝 센터의 에스더 송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3
제 3 절 연구의 개요	4
제 2 장 복음의 핵심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5
제 1 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구약적 배경과 신학적 전제들	5
1. 하나님 나라	5
2. 천국	6
3.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7
제 2 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8
1. 예수의 복음 선포로서의 하나님 나라	8
2.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	9
가. 구약성경의 약속의 성취를 제시하는 방식	9
나. 잠언, 경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방식	11
다. 이야기/그림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방식	12
3.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를 시위함	14
4.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	15
5.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행위들	16
제 3 절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	17
1. 내용적 측면	17
가. 바울서신	17
나. 히브리서	21
다. 계시록	22
2. 선포의 방법적 측면	22

가. 구약성취의 도식으로 선포된 말씀	23
나. 잠언(경구)의 형식으로 선포된 말씀	23
다. 이야기(비유, 그림 언어, visual image)로 선포된 말씀	24
제 4 절 오늘날의 설교자들을 위한 지침	26
제 3 장 복음의 전달 방식으로서의 네 페이지 설교	27
제 1 절 새로운 설교법에 대한 사회학적 이슈들	27
1. 사회학적 변화	27
2. 삶의 패턴의 변화	28
3. 전통설교법의 고수	28
4. 설교비중의 감소	28
제 2 절 네 페이지 설교의 필요성	29
제 3 절 설교의 목적	30
제 4 절 네 페이지 설교의 구성요소들과 특징	30
1. 첫 번째 페이지	31
2. 두 번째 페이지	31
3. 세 번째 페이지	32
4. 네 번째 페이지	33
5. 시각화하기	35
6. 네 페이지 설교의 장점들	35
7. 네 페이지 설교의 단점들	37
제 5 절 네 페이지 설교와 전통설교의 비교	38
제 6 절 네 페이지 설교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내용과 방식비교	39
1. 내용적 측면	39
2. 전달 방법적 측면	40
제 7 절 요약 및 결론	41
제 4 장 미주 한인교회의 주일 설교 분석 및 평가	42

제 1 절 표본교회들의 설교분석의 범주들	42
제 2 절 은혜한인교회	43
1. 설교의 내용 분석	45
2. 설교의 구성 분석	45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49
제 3 절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51
1. 설교의 내용 분석	53
2. 설교의 구성 분석	54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57
제 4 절 얼바인침례교회	58
1. 설교의 내용 분석	60
2. 설교의 구성 분석	60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65
제 5 절 선한목자장로교회	66
1. 설교의 내용 분석	68
2. 설교의 구성 분석	69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73
제 6 절 충현선교교회	75
1. 설교의 내용 분석	76
2. 설교의 구성 분석	77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82
제 7 절 종합평가	83
제 5 장 네 페이지 설교 방법을 활용한 하나님 나라 선포	85
제 1 절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 본문에 대한 네 페이지 설교의 사례	85
제 2 절 고린도전서의 하나님 나라 본문에 대한 네 페이지 설교의 사례	89
제 6 장 결론	93

제 1 절 논문의 요약	93
제 2 절 하나님 나라 본문에 대한 네 페이지 설교방식의 실제 의의와 효용도	94
제 3 절 미주 한인교회에 제안하는 한 가지 설교 모델	94
부록. 네 페이지 설교의 예	96
참고 문헌	100
Vita	104

표 목차

<표 1> 눅 15:11-32의 네 페이지 구성 사례	34
<표 2> 은혜한인교회 주일설교 목록	44
<표 3> 라구나힐스UMC 주일설교 목록	52
<표 4> 일마인침례교회 주일설교 목록	59
<표 5> 선한목자장로교회 주일설교 목록	67
<표 6> 충현선교교회 주일설교 목록	7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903년을 시발점으로 하여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는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인 교회 역시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한국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계청은 2009년 12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210만 2283명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8만 5372명이 증가해 세계국가 가운데 미국 거주 한인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재외동포인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152만 7513명에 이르고 있으며 단기체류자도 57만 4,7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¹⁾

한인들은 두세 명만 모여도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으나 미주 이민사회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이민교회 역시 성장했으며, 한국일보에 의하면 현재 미주에 세워진 한인교회들은 그 수가 2008년 2월 현재 3,776개로 집계됐다.²⁾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미주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고, 매주 혹은 매일 수많은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효능과 영향력이 점차로 감소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1) “미주 한인수 급증,” *미주한국일보* (2009년 12월 30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568422> (Accessed October 5, 2011).
2) “미주한인교회수 줄었다,” *미주한국일보* (2008년 1월 9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426182> (Accessed October 5, 2011).

많은 교회의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교회 성장의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주의를 담은 설교를 함으로써 신앙의 개인화와 물신주의적 성향을 부추겨 왔다. 그 결과 신앙의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 한 채 그저 복만 추구하는 기형적 모습의 신앙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필자의 지난 19년간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사실이다.

4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인 교회의 2011년 한 해 동안의 설교사례를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본문을 사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있다 해도 연중 기껏해야 2-3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선포 방법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신 방법에 비추어 한인 교회 설교를 분석한 결과 매우 다른 형태의 설교유형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 성경의 성취의 도식으로 구약의 사건들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십시오으로써 구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를 잘 설교하셨으며

둘째, 경구를 사용하셔서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할 수 있는 짧지만 임팩트를 주는 말씀을 하십시오으로써 사람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셨다. 예를 들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눅 16:16)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5)와 같은 말씀들이다.

셋째, 예수님은 그림 언어를 사용해 말씀을 전하십시오으로써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효과를 주시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뿔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눅 17:16)와 같은 말씀들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성취의 도식과 경구와 그림언어를 함께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

미주한인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는 대부분 전통적 설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특히 신설교학의 한 조류인 네 페이지 설교법과의 비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네 페이지 설교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페이지는 본문 속에 나타난 문제, 두 번째 페이지는 세상 속의 문제, 세 번째 페이지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페이지는 세상 속의 하나님의 은혜 등으로 나뉜다.

네 페이지 설교는 문제와 은혜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행동하심,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인교회 설교에서 선포의 핵심내용이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방법과도 일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네 페이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미주 이민교회가 오늘의 개탄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민사회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설교의 내용과 설교자의 인격, 그리고 삶이 일원화되어야 하며 청중이 즐거움을 만한 내용만을 전하는 인기에 영합하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민교회 강단의 설교의 문제를 구성 및 전달 방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늘의 이민교회 회중들에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삶에 보다 연결되는 방식으로 전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필자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첫째는, 표본집단으로 선정한 5개 교회의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의 주일 한어 예배 설교를 성경본문과 제목, 설교의 구성 및 선포 방식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선정된 5개 교회는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교단의 남가주 노회 소속의 은혜한인교회, 감리교파 연합감리교단에 소속된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침례교파 미남침례회의 얼바인침례교회, 미국장로교단 산 가브리엘 노회소속인 선한 목자장로교회, 장로교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충현선교교회 등이다.

선정 기준을 우선 각 교파별 안배에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 다섯 교파에서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한 교회를 택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개요

제1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동기와 목적을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적 사상들과 신약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를 비교 분석하면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사도들의 하나님 나라 사이의 연관성과 다른 점,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사도들의 선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전통적인 설교와 필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복음의 전달 방법인 네 페이지 설교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네 페이지 설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표본 집단으로 선정한 다섯 개 한인교회의 주일 설교를 분석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설교의 구성 및 선포 방식의 관점에서 관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입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5장은 Paul Scott Wilson이 제안하고 있는 네 페이지 설교를 활용한 하나님 나라 설교의 실재를 제시함으로써 미주 한인교회 청중들로 하여금 복음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접하게 하며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며 제6장은 결론으로서 본 논문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이 시대에 바람직한 설교의 형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를 네 페이지 설교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복음의 핵심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주제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든다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스라엘)을 지정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구실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렘 7:23; 11:4; 30:22 롬 9:26)는 약속이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언약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³⁾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신약 시대에 예수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선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구약적 배경과 신학적 전제들

하나님 나라(*basileia tou theou*)가 예수의 선포 가운데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강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념 자체는 이미 구약과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를 다루기에 앞서 이 개념 자체의 구약적 배경과 신학적 전제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하나님 나라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basileia tou theou*)는 기본적으로 통치, 지배, 주권을

3)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41, 90. 김세윤은 구약적 언약 사상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전제임을 파악한다.

의미하는데 이를 야훼와 연결시켜 사용할 경우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 지배, 주권 등을⁴⁾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⁵⁾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예: 대상 28:5). 이스라엘은 강력한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한 후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 혹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개인들의 심령 위에 존재한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신, 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그들이 처한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 형태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⁶⁾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바로 이와 같은 구약과 유대교 내의 전제들을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예수가 다른 점이 있다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 이미 이 땅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마 8:11; 20:21)⁷⁾.

2. 천국

천국(*basileia ton uranon*)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부러 34회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마태가 철저히 피하지는 않는다(예: 마 6:33; 19:24). 그러나 이와 같은 드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마태는 마가의 하나님 나라를 거의 천국(하늘나라)으로 바꾸어 표현한다(예: 막 4:11/마 13:11; 막 4:30; 마 13:31). 마태가 이처럼 천국을 선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한 때문일 것이다.⁸⁾

4) George E. Ladd, *신약신학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이창우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87.

5) 정형철,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청아문화사, 1992), 1667.

6) 정형철, *아가페 성경사전*, 1668.

7)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1992), 47.

8) George E. Ladd, *신약신학*, 88.

3.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특히 두 가지 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출 15:18; 민 23:21; 신 33:5; 사 43:15) 또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이다(왕하 19:15; 사 6:5; 렘 46:18; 시 29:10; 시 99:1-4). 야훼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대상 17:14; 29:11; 시 45:6; 103:19; 145:11, 13; 단 4:3, 34; 욥 2:1에도 나온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는 것이 삼하 7:12; 시 2:7 등에 기록되어 있다.

단 2:44/7:22에 기록된 malku는 아람어로서 왕권, 왕국, 통치, 지배, 영토 등의 의미로 쓰여졌으며 같은 단어가 스 4:24; 단 5:11에서는 왕으로, 스 7:13; 단 2:37에서는 나라로, 단 4:30에서는 도성으로, 단 4:29에서는 궁으로, 단 6:4에는 국사로, 단 7:27에서는 열국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 사 9:6의 나라는 mamelakar로서 왕국, 통치권, 통치, 지배, 등의 뜻으로 쓰여졌다. 같은 단어가 창 10:10; 출 19:6에서는 나라로, 민 32:33에서는 국토로, 신 17:18; 대하 21:3에서는 왕위로 신 28:25; 스 1:2에서는 만국 등으로 쓰이고 있다.⁹⁾

김세윤은 구약 유대교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¹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고백이었다(시 93:1; 99:1; 146:10).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출 19:5).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였다.

9) 김용환, *구약원어대조성경* (서울: 로고스, 1993), 158.

10)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50.

제 2 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1. 예수의 복음 선포의 요약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은 마가복음 1장에 잘 요약되어 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의 설교의 요약으로 본다.¹¹⁾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온다(마 6:10; 눅 19:11; 마 25:41; 마 13:36-43; 눅 13:28-29)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를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눅 4:16-21; 마 11:2-6)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르쳤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¹²⁾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한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은혜성의 표현이다(눅 11:2; 마 6:10).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인간 입장에서 보자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뿐이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영생(오는 세대의 신적 생명)으로 바꾸어 표현하는데 이 영생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성과 초월성을 잘 말해준다. 이는 요 1:12-13과 3:16에서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예수는 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은혜를 강조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초월적인 것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월자로서 진능하신 이(하나님)가 직접

11)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길사, 1993), 127.

12)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59.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가 제시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통치를 펼치시는 분이시다.”¹³⁾ 즉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의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영역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초대)이었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¹⁴⁾

2.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

지금까지 예수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 못지않게 증언하는 것이 “선포의 방식”¹⁵⁾이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제시했다. 첫째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둘째, 잠언과 같은 경구 표현을 통해, 셋째 이야기를(비유, 그림언어)통해서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구약성경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설교)하실 때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구약성경과 연결지어, 그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자주 비유를 통해 전하셨는데 그는 그 이유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신다 (마 13:12-15; 막 4:10-12; 눅 8:9-10). 요약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진정으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다 (마 13:11, 막 4:11, 눅 8:10).

이 중에서 마태가 구약을 가장 자세하게 인용하여 소개해 준다. 마13:14의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것은 사 6:9-10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

13)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99.

14) 김세운, *예수와 바울*, 65.

15)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The Four Pages of the Sermons)*, 주승중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8), 20.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예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심정이 동일하게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 당시의 무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¹⁶⁾

두 번째 예로는 눅 4:14-21을 들 수 있다.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것은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 하신 것이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시위하는 사역들의 의미를 구약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신다. 예수는 사 61:1-2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구절을 자신에 관한 예언으로 명시하셨을 뿐 아니라 이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임하였다고 선포하심으로써 그가 행하시는 사역이 공적 사역임을 분명히 선포하셨다.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려고 할 때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는 제도였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도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기름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the anointed)를 구별해 세우신 것을 뜻한다.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불의한 권위에 짓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세 번째 예는 마 21:42-43이다. 마 21:42-43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밭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예수의 말씀은 마 12:3, 19:4, 21:16, 막 12:10등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다. 마태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의 지상사역 기간 중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예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까지 가리키는 것이다.¹⁷⁾

16)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486.

17) R. T. France, *마태신학 (Matthew: Evangelist and Teacher)*, 이한수 역 (서울: 엠마오, 1998), 417.

나. 잠언, 경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방식

둘째로는, 속담, 격언, 잠언, 경구 등과 같은 표현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수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눅 22:30)고 말씀하시었다. 경구 형식의 이 말은 격언의 문체로 예수가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이다. 밭을 가는 목적은 끈은 고랑을 내는 것이며 만약 다른데 신경을 쓴다면 고랑은 엉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른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삶에 있어서 철저한 우선순위를 가지되 하나님 나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¹⁸⁾

눅 18:29-30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 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편 마 19:29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로 기록되어 있으며, 막 10:30에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로 표현되고 있다. 즉 예수와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곧 복음이다. 복음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대가는 금생과 내생에 보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은 구원의 확신에 따른 순종의 표현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¹⁹⁾

예수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마 10:24)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앞 절인 23절에서 부자가 보여주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통해볼 때 재물에 대한 소유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물질을 향한 소유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향한 소유욕이나를 선택하는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재물을 독점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상 정당한 것이 되지 못하며 필요 이상의 소유는 이웃에게 돌아가야

18)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295.

19) James L. Mays, *Harper's Bible Commentary* (San Francisco, CA: Harper, 1988), 1036.

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²⁰⁾

예수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4; 막 10:25; 눅 18:25)고 말씀하시었다. 부자가 영생을 얻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용된 이 비유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교만하고 자기만족에 차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²¹⁾

눅 6:20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는 말씀은 마 5:3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 두 복음서 간의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영적으로 가난하든 그들은 늘 예수의 관심의 대상이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약한 자들이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다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소외된 자들로서 눌러 지내는 자들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한 경건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고통 받는 자로 혹은 가난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 가난한 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을 동시에 포함한다.²²⁾

나. 이야기/그림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방식

셋째는, 이야기(비유, 그림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비유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이며,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유에는 흔히 그림 언어들이 많이 동원된다. 비유는 학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성격을 잘 알고 익숙하게 접하는 사교의 틀과 그림 언어로서 사실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마 13:1-23), 혼인 잔치의 비유(마 22:2-10; 눅 14:16-24), 상속받음의 비유(마 19:29;

20)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355.

21) 전의식, *트리니티 말씀대전* (서울: 달산, 1993), 722.

22)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192.

21:38; 25:34 막 12:7 눅 20:14) 탕자의 비유(15:11-32)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김세윤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한 것임을 잘 지적한다.²³⁾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시에 그림 언어를 자주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며 다스리심이 시작되고 후에 그 믿음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마 13:23).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주시는) 하나님 나라(통치하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²⁴⁾ 밭은 성도 각 개인의 심령을 의미하며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예수님)이고 길가는 깨닫지 못하여 그 말씀을 유보하거나 거짓 진리에도 귀를 기울여 이것저것을 망설이는 것을 의미한다.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굳게 서지 못하는 경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며 가시떨기는 주위의 환경, 물질 등의 외부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하며 방황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좋은 땅은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 역시 자주 언급되는 비유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하며, 좋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혼인 잔치는 마 22:2-10과 눅 14:16-24)에 기록되어있다. 잔치는 매우 풍요롭고, 넉넉하며, 즐거움을 동반한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또 한편으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마 19:29, 25:34 눅 12:32-34)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복과 안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 모든 것이 고갈되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구걸해야 하는 신세가 된 탕자의 비참한 모습을 통하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옴

23)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55.

2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93.

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다. 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용서와 은혜를 입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상속자로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가 전한 구원이며, 우리에게 생명(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필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오다” 혹은 “들어간다”라고 설명하신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3.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를 시위함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말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과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를 증명하여 보이셨다.

첫째, 병 고침과 축사를 통한 치유사역이다(마 4:23-24, 8:16, 9:35, 막 1:34, 3:10, 6:13, 눅 4:40, 7:27, 10:9). 치유사역은 예수의 공생애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메시아 사역이었다.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고 말씀하셨다. 병행구절인 눅 11:20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구약적 표현(출 8:19; 31:18; 시 8:3)으로서 성령을 힘입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 예수는 적대자들의 귀신축출과 사단과의 연관성에 대해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자신의 행위가 성령의 임재와 사역에 의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상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임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예수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이미 사단을 결박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보다도 더 강한자이시며 종말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여 악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아래 있던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시며 그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성령에 따라

살게 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 드리워진 죽음의 증상들 즉 죄, 병, 사회적 차별, 소외 등등-을 제거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²⁵⁾

둘째, 식탁교제이다(마 9:10, 28:7, 막 2:16).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 등 죄인으로 지목되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과 식탁교제를 나누셨다. 예수는 자신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왕(하나님)이 아들(예수님)을 위해 베푸는 혼인 잔치로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는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축제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인 남편으로서 말씀하고 계신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말하고 있다 (엡 5:23-32).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혼인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기쁨을 이 땅에서 선취케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는(마 22:37-39, 막 12: 30-31, 눅 10:27)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의 모델을 보이셨다.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미래의 내세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그와 제자들과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피상적인 형이상학적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4.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

포괄성이란 하나님 나라(하나님의 통치와 그 결과로서 누리는 구원)를 내세의 구원에만 제한시키거나 교회와 세상, 성속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삶, 내세, 교회 안과 밖, 세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임하였고,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가 선포하고 실천해 왔던 바이고 제자들이 요청받은 바이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설교자들이 물려받을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5)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455.

5.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행위들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전도의 사명과 귀신을 제어하는 힘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 받았다(마 10:1; 눅 9:1-2). 또 칠십 인을 파송하실 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기에 그들은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다(눅 10:17).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고 이 세상의 죄악과 모순, 억압, 차별, 소외 등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였다.

그러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선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은 “메시아”라는 것이다.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은 받은 것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중간사시대부터 종말의 구원을 이루는 일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메시아는 종말의 구원을 이루는 일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가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다.²⁶⁾

그러기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메시아적 행위였던 것을 선포한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미 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다 (마 16:16, 14:33).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전권을 물려받은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는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는 것이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

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베드로와 요한)의 전도함을 금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행 4:20)고 선언함으로써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6)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52.

제 3 절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이후 신약의 사도(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선포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 절에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과 신약의 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선포를 비교하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내용적 측면

가. 바울서신

바울서신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언급과 반영들이 존재한다 (고전 6:9-10). 이것은 바울서신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예수와 바울 사이에 하나님 나라 선포의 내용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고전 6:9-10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성도들의 실질적 삶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바울이 윤리적인 권면들 속에서 예수의 말씀과 비슷한 가르침을 주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예수 전승을 몰랐거나 역사적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F. Neiryneck 와 N. Walter 같은 학자들은 바울과 예수의 연속성을 최소한으로 본다.²⁷⁾

2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368.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와 바울간의 연속성을 반증한다. “기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마 5:5; 19:29; 25:34)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연관지어 사용하는 용어로서 바울이 예수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²⁸⁾

바울이 다른 한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으로 열거하는 악덕의 목록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하게 한다 (막 7:21-22; 마 15:19).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힐 수 있으며 또 더럽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은 곧 마음을 의미하며 마음은 생각이나 사상 또는 감정 등의 근저이자 중심이다. 이러한 생각이나 사상 혹은 감정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인격의 주체가 된다.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 불의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행하는 악의 성격으로 인해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놓인 자들을 지칭한다.²⁹⁾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기독교 전승에 근거한 자신의 가르침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예수가 말하고 있는 악한 생각이란 부정과 음모로 꾸며진 의지적인 생각으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³⁰⁾ 바울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불의한 자란 악한 생각을 하는 자 곧 예수가 말하고 있는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바울은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람, 술 취함, 후욕, 토색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상당부분 비슷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바울이 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8) 김세운, *바울신학과 새 관점* (서울: 두란노, 2002), 433.

29) 강병도, *호크마종합주석*, 126.

30) 강병도, *호크마종합주석*, 248.

31) 김세운, *예수와 바울*, 376.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 사이에는 분명한 신학적 연속성이 존재한다. 바울은 칭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아빠라는 예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죄인들을 환영하고 겸손과 섬김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더욱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예수가 말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불의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며 바울의 가르침 속에 예수의 말씀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고전 15: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의 언어로 표현한 것은 예수의 전승 위에 서있음을 시사해 준다. 예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롬 3:24; 5:18; 11:6)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행 15:11; 롬 2:7; 고전 4:12; 고전 13:4; 약 5:8; 벧전 3:20; 계 2:3)가 필요하다.

(3)갈 5:19-21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여기서도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죄들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막 7:21-22에 예수의 말씀을 재천명한 것으로 육의 속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의 최악된 품성과 지적인 교만, 그리고 도덕적 한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육체의 일이란 성적 부도덕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극단적인 이기심 등을 의미한다.³²⁾

32) 김국종, *트리니티 말씀대전*, 527.

(4)골 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시라는 사상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아들(상속자)은 통치의 대행자이며 나라는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마음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3:3-5)요, 둘째는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도래해 있다.³³⁾

(5)고전 15: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왕으로서 등극한다는 것은 모든 악의 세력을 도말하는 것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³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주권적 통치를 뜻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부활하면 이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의미이다.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악(사탄)의 세력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³⁵⁾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의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시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와 함께 사단의 권세를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시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없는 권위와 지위를 가지신 것을 말한다.³⁶⁾

33) 김세윤, *예수와 바울*, 90.

34) James L Mays, *Harper's Bible Commentary*, 1187.

35) 김국종, *트리니티 말씀대전*, 233.

36) Donald A. Hagner, *히브리서 (Encountering the Book of Hebrew)*, 이창국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1005), 57.

나. 히브리서

(1) 히 1:8

한편 히브리서 기자 역시 하나님나라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시 45:6-7을 인용하면서 이를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아들의 완전한 지위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주로서 영원토록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³⁷⁾ 인간이면서도 왕과 하나님으로 불리울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의 신적 권위에 대한 설명으로 아들(예수)을 구약 성경 인용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호칭함으로써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좌, 나라, 홀은 아들(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의롭고 바른 것임을 시사한다.³⁸⁾

예수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마 9:6, 막 2:10),”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마 12:8, 눅 6:5),”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마 13:41-42),”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마 16:27)”고 말씀하시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나라와 왕권은 영원하며 그 나라는 정의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공명정대한 나라라는 것을 입증한다.³⁹⁾

(2)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진동치 못할 나라란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한 므나로

37) Otto Michel, *국제성서주석: 히브리서*, 강원돈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63.

38) 강병도, *호크마종합주석*, 37.

39) 김국종, *트리니티말씀대전*, 388.

열 므나를 남긴 사람에게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역시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남긴 사람에게도 다섯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눅 19:16-19)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왕권을 받음으로 주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동치 못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를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참조, 벰후 1:11).

다. 계시록

(1) 계1:6 / 5:10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1:16).”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5:10).”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만일 유대민족이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출 19:5-6; 사 61:6). 초대교회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30)는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며 동시에 그들의 영적 선조들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상속할 것이라고 이해하였기에 집합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⁴⁰⁾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계 1:6)”고 말함으로서 예수가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였음을 밝힌다.

2. 선포의 방법적 측면

앞서 예수의 선포의 방식에서 알아보았듯이 사도들의 선포의 방법 역시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구약 성취의 도식으로, 둘째, 잠언(경구)의 형식으로, 셋째, 이야기(비유, 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선포된 말씀이 어떤

40) Robert H. Mounce, *요한계시록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Revelation)*,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88.

방식으로 선포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구약성취의 도식으로 선포된 말씀

(1) 히 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의 선포의 방식은 구약 성취의 도식을 사용한 것으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사 53장).

나. 잠언(경구)의 형식으로 선포된 말씀

(1) 고전 4: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의 선포의 방식은 잠언(경구)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능력은 나의 나약함이 십자가를 거쳐 나오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 빌 4:13).

(2) 고전 6:9-1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의 선포의 방식은 경구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포되고 있다.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리로 침입하느니라”(눅 16:16)고 말씀하셨다. 신앙은 각, 개인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구별되는 기준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받

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데 기인한다(롬 10:9-10).

(3) 고전 15: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의 선포의 방식은 잠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포되고 있으며 육적인 것, 즉 죄와 죽음의 권세는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도말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전 15: 54-58).

다. 이야기(비유, 그림 언어, visual image)로 선포된 말씀

(1) 롬 1: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이교적 악덕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죄의 결과는 형벌이다. 하나님이 아닌 무가치한 다른 것을 섬김으로써 정죄의 근거가 된다.⁴¹⁾

(2)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성전 건축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것은 교회를 구조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가 가진 “충만성을 명료하게 설명하려는 저자의 의도와 일치한다.”⁴²⁾

(3) 계 5: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41) Ernst Kasemann, *국제성서주석: 로마서*, 박재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81.

42) Ernst Kasemann, *국제성서주석: 로마서*, 241.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6)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교회의 설립에서 성취된다.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집합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옛 언약 제사에서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새 언약 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각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땅이 의미하는 것은 종말론적 성취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와 더불어 왕 노릇 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왕 노릇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⁴³⁾

(4) 계 11:17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말씀의 선포의 방식은 계 1:8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에 기초한 말씀으로 전능, 권능, 왕 노릇 등의 그림 언어(Visual Image)로 선포되고 있다.

(5) 계 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이다.”

앞으로 도래할 세대는 밤과 어두움이 없는 낮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심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시리라”는 히브리 적 표현으로 볼 때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게 하시리라”로 번역할 수 있다. 성도들이 바라볼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다.⁴⁴⁾

43) Robert H. Mounce, *요한계시록*, 175.

44) Robert H. Mounce, *요한계시록*, 461.

제 4 절 오늘날의 설교자들을 위한 지침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보다 자주 전해야 하며 사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언어로 재해석해서 제시해야 한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방식대로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의 내용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자주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권세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단에서 부지런히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선포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예수의 선포 방식을 본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경구와 비유, 그림 언어들을 통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더 나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함으로써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초청하여 그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3 장

복음의 전달 방식으로서의 네 페이지 설교

이전 장에서는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내용과 방식의 관점에서 예수와 사도들을 비교하고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신설교학의 한 조류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Paul Scott Wilson의 네 페이지 설교의 방법을 살펴보고 이 방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본문들에 대한 효과적인 설교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새로운 설교 법에 대한 사회학적 이슈들

1. 사회학적 변화

현대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모던 시대로서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가 부인되고 교회와 성경, 설교자들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교회와 설교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 이후로 사회에는 대 격변이 일어났으며 진리가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사조 속에서 과거에 영향을 주던 방법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항해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한인교회와 서구교회(미국교회)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⁴⁵⁾ Brian Chapell은 오늘날 설교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과 세속화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설교의 초점을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사회 개혁에 두게 된 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⁴⁶⁾

45)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31.

2. 삶의 패턴의 변화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변화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을 위한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여가 선용을 위한 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아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시간은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청중들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은 더욱 많아지고 있으나 교회들은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⁴⁷⁾

특히 한인 교회는 고국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환경이다 보니 교회 모임이 사교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바른 복음의 선포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3. 전통설교법의 고수

서구교회나 한인교회를 막론하고 아직까지도 대중적인 설교형태는 그 이전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지나간 세대에 효율적이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세대에도 효과적이기를 바라며 행해지고 있다. 그 형태들은 복음으로서의 성격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은혜를 설교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설교법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그들의 신학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성도 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⁴⁸⁾

4. 설교 비중의 감소

설교 시간이 대체로 짧아지고 있으며 설교 이외의 요소들이 점차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으며 성경봉독(설교하면서 목사가 지정하는 성구를 다 같이 읽는)이 늘어나고 있다.⁴⁹⁾

이상에서 언급한 사회적 이슈들을 염두에 둘 때에 어떻게 하면 설교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가? 필자는 Paul Scott Wilson이 제시하는 네 페이지 설교야말로 설

46)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Christ 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김기제 역 (서울: 은성, 2003), 13.

47)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31.

48)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36.

49)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32.

교에서 전하려고 하는 주제를 포스트모던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설교방안이라고 본다.

제 2 절 네 페이지 설교의 필요성

네 페이지 설교는 이상에서 제기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Paul Scott Wilson이 제안한 설교방법이다. 필자가 전통적인 3대지 설교보다 네 페이지 설교를 가치 있는 설교의 모범으로 지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페이지 설교는 우리들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에 대해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요즈음과 같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교회와 성경 설교자에 대한 권위에 도전이 가해지며 진리는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네 페이지 설교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페이지 설교만 하면 그냥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은 자기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자기 신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적 한계에 근거한다. 네 페이지 설교는 바로 이점, 즉 자기신뢰(진리는 상대적)의 허점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페이지 설교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청중들에게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정보의 부족이라는 것은 없고 교회와 성경, 설교자들에 도전하는 수많은 정보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매스컴(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방송)에서 본 것을 근거로 해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진리, 절대가치에 반대할 것을 결정한다. 많은 설교자가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각 개인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감을 추궁하면서 유죄판결을 하는 것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그러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게 되고 침울해지기까지 한다. 물론 설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의식과 책임감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네 페이지 설교는 소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촉진한다.

셋째, 기존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대해 잘 드러내지 않는다. 네 페이지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몸소 일하시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넷째, 설교의 역할은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설교는 그들이 설교를 듣기 전보다 더 많은 소망과 용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네 페이지는 청중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⁵⁰⁾

제 3 절 설교의 목적

설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설교는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며, 신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제 4 절 네 페이지 설교의 구성 요소들과 특징

Paul Scott Wilson이 제시하는 네 페이지 설교를 각 단계별로 특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네 페이지 설교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Wilson에 의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본문 속에 나타난 문제들에 집중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살피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면서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한다.⁵¹⁾ Long 역시 설교자가 성경본문과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체험하여야 하며 본인이 받은 그 은혜와 체험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⁵²⁾

50)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34-42

51)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6.

52) Thomas G Long, *증언하는 설교 (The Witness of Preaching)*, 이의제, 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145.

1.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는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죄성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책임)대로 하는 것인가?’하는 문제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청중들로 하여금 열린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⁵³⁾

성경에 나타난 인간사 안에는 언제나 잘못된 것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본문이던지 그 본문이 성경에 포함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우리에게 대한 다윗의 살인죄와 밋세바에 대한 간통죄이다 (삼하 11:3-21).

때로는 문제가 분명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고린도교회의 문제로 바울의 편지를 보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인간적인 관찰이나 의견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적 조명(illumination)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의존한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이나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을 통해 인간들의 죄 성, 타락한 상태, 혹은 상처를 가리킨다. 그것을 통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본문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의 공감대는 무엇인가?’가 첫 번째 페이지의 핵심 요소이다.⁵⁴⁾

2.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책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Wilson은 두 번째 페이지는 성경 본문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시간적 간격과 문화, 언어, 지리적 배경, 그리고 세계관(worldview)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들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⁵⁵⁾

53) Paul Scott Wilson, *내 페이지 설교*, 128.

54) Paul Scott Wilson, *내 페이지 설교*, 129.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교를 통해 이루신다. 이것은 설교의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⁵⁶⁾

두 번째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시대와 오늘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와 오늘날에도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 속성이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적 사항은 우리들의 신앙적 실패와 그 결과들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서 죄(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이나 삶 혹은 행동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며 그 죄의 결과가 죽음(심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서 복음 이외의 것을 탐구하는 우리의 모든 핑계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는 초월적 혹은 수직적인 문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제적인 문제 즉 수평적인 문제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구조적 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⁵⁷⁾

3. 세 번째 페이지

Wilson은 세 번째 페이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설교자들은 이 세 번째 페이지를 잘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세 번째 페이지를 설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상처와 고통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⁵⁸⁾

55)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92.

56) Bri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2

57)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96.

성경에는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성경은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적 원리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⁵⁹⁾

세 번째 페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조건 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진 고통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이제 죄의 권세와 힘은 끝이 났으며 우리를 죄의식과 고통 속에 억매여 두었던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신 주님 안에서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페이지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죄와 세상의 권력(능력)들에 대해 부인하게 하면서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동은 세 번째 페이지의 핵심적 내용이며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가 이끌고 가던 설교 전체의 통일된 주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은 세 번째 페이지의 주제가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의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⁶⁰⁾

4. 네 번째 페이지

Wilson은 네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네 번째 페이지는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첫째. 네 번째 페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상황과 삶에 적용한다.

58)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83.

59) Benard Ramm, *성경해석학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정득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247.

60)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87.

둘째, 네 번째 페이지는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토록 한다.

셋째, 네 번째 페이지는 우리 삶의 문제들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있는 영적이면서도 신학적 통찰력을 가진 확신에 찬 선포여야 한다.

넷째, 네 번째 페이지는 은혜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긴장들을 극복하게 해 주면서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신앙적 비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네 페이지를 눅 15:11-32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페이지: 성경 속에서의 문제	두 번째 페이지: 우리의 문제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마구 낭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마구 낭비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 성경 속에서의 은혜	네 번째 페이지: 우리의 은혜
아버지는 사랑을 마구 낭비하는 식으로 배부 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표 1> 눅 15:11-32의 네 페이지 구성 사례

설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설교자가 제시하는 많은 주제들에 집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마다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할 때에 설교는 구체적이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할 때에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설교의 효능을 높인다. 설교의 모든 문장이 과거형이어야 한다던가, 현재형과 미래형의 문장이 설교의 효능을 높이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인간들의 행동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네 페이지의 통일성은 무엇인가?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진술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은혜에 관한 진술이 세 번째 페이지의 주제가 된다.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주제문인 세 번째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주제문을 드러나게 역할을 하며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한다. 각

페이지들은 하나의 주제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결론에서는 그 설교가 한 주제, 한 아이디어, 한 이미지에 관한 것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⁶¹⁾

5. 시각화하기

효과적인 설교의 전달을 위해 Wilson은 설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교자가 인쇄된 원고를 읽는 것처럼 설교를 한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청중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설교자는 오늘날의 청중들은 전자문화(electronic culture)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본문을 지나간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본문의 사건들이 현실의 사건인 것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마치 영화의 장면들이 바뀌듯이 본문의 줄거리를 바꾸어 가면서 각 페이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즉 Visual Image를 통해 청중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상상력을 동원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⁶²⁾

교회 내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설교자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의 예를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고전 9:22),”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말라(고전 10:28).” 폭넓게 청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며 자기에게 가장 자유스러운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확고한 설교기반을 얻을 수 있다.⁶³⁾

6. 네 페이지 설교의 장점들

네 페이지 설교는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를 연속적으로 이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의 주제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 필자가 보는 견해로는 네 페이지 설교는 그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 매번

61)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381.

62)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347.

63) Haddon Robinson,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전의우 역 (서울: 두란노, 2006), 167.

프레임을 짜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각각의 페이지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성경적 설교를 할 수 있게 한다. 설교자의 역할은 성경을 효과적으로 전함으로써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들의 필요를 알고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네 페이지 설교는 청중들의 기독교적 이해를 돕도록 성찰한다. 네 페이지 설교의 주된 장점 세 가지를 든다면 첫째,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설교를 위한 창조적 노력이 효과적이게 한다. 둘째, 설교에서 신학적인 갱신을 용이하게 해 주는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셋째, 상상력이 풍부한 성경적 설교를 하게 한다.⁶⁴⁾

네 페이지 설교의 역자인 주승중 역시 너무나 분명한 설교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네 페이지 설교에 대해 한국교회의 3대지 설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터넷과 영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익숙한 영상세대와 포스트모던 청중들에게 매우 유용한 설교방법이라며 네 페이지 설교를 지지한다.⁶⁵⁾

필자 역시 네 페이지 설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문제(1페이지)와 오늘날 우리의 문제(2페이지)를 연결시키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은혜(3페이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4페이지)가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네 페이지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며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그러나 네 페이지 설교 같이 설교의 틀을 강조하는 접근법에 대해 Lloyd-Jones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함에 있어 설교 방식(Method), 설교방법, 설교수단, 설교기술을 중시하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다.⁶⁶⁾ Lloyd-Jones는 또 설교에 있어서 기교와 방법 그리고 의사전달의 문제가 중시되어서는 안 되며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64)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49.

65)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8.

66) D. Martin Lloyd-Johns,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2.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⁶⁷⁾

이와 같은 관점에서 Wilson의 방법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Thomas G. Long이 있다. 그 역시 신실하고 훌륭한 설교에 필요한 재능은 청중을 흥분시키거나 카리스마적 연예인들이 가진 재능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신앙과 삶을 연결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 자비로운 마음 등이라고 주장한다.⁶⁸⁾

필자는 설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전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필자는 설교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좋은 내용을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전하게 될 때 설교의 효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설교는 그것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교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설교를 듣는 청중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설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 전달방법 역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전자문화에 길들여진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시각화를 통한 네 페이지 설교야말로 포스트모던 청중들에게 가장 유효한 설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7. 네 페이지 설교의 단점들

Wilson은 설교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형태에 있어서 상상력과 창조적 구성을 통하여 본문의 스토리를 재구성하게 될 때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화같이 만드는 모험을 감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본문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본문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⁶⁹⁾

67) D. Martin Llyod-Johns, *목사와 설교*, 68.

68) Thomas G Long, *증언하는 설교*, 31.

69)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46.

네 페이지 설교의 주된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본문 그대로를 설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Thomas G Long은 성경말씀을 여과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설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Wilson은 오늘날 설교자가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심지어 그러한 원칙을 주장했던 루터, 칼빈, 바르트도 본문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교를 시각화 하는 과정에서 구절들을 지루하고 장황하게 묘사하거나 혹은 비현실적인 대화나 독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⁷⁰⁾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설교방법을 귀납적, 혹은 연역적, 혹은 강해, 혹은 이야기 등으로 바꾸어가면서 한다면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중들도 지루해 하지 않고 더욱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5 절 네 페이지 설교와 전통 설교법의 비교

전통적인 설교 방법은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된 단순한 형태를 가진다. 굳이 네 페이지 설교와 비교해서 말하자면 전통 설교에 있어서의 주해는 네 페이지 설교의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며 전통 설교에 있어서의 적용은 네 페이지 설교의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된다. Wilson은 이와 같이 두 부분으로 된 전통적 설교의 장점은 설교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상황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 청중들로 하여금 본문과 메시지와 자신들의 삶의 상황이 관련성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네 페이지 설교는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둔 세 번째 페이지와 네 번째 페이지를 사용함으로써 연결 지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고 주장한다. Wilson은 설교의 구조가 설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면서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문제들로서 설교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⁷¹⁾

70)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47.

71)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32-138.

제 6 절 네 페이지 설교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내용과 방식 비교

Wilson의 네 페이지 설교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이에는 내용과 전달 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네 페이지 설교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이의 내용과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내용적 측면

네 페이지 설교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본문에 나타난 문제에 집중하고 두 번째 페이지는 우리들의 문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고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우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는 것이다.⁷²⁾

네 페이지 설교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실패, 죄, 상처, 행동해야 하는 책임,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기대감 혹은 행동을 중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주력한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끄집어내어 해석함으로써 수천 년의 시간적 간격에 다리를 놓고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의 지리적 배경, 문화, 언어, 그리고 세계관 사이에 있는 틈을 뛰어넘어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의 공통점(죄)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이 두 차원을 묶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⁷³⁾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을 포함해서 잘못으로 죄를 지은 상태에 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이 주를 이루면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핵심된 관점이다.⁷⁴⁾

구약의 세계에서는 정의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관심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고에 기인한 것이었다. 구원에 관한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적 의미들 가운데 하나는 탁 트인 공간이다. 이런 사회적 관심과 정의는 또한 예수

72)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1.

73)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91.

74)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86.

님 자신의 사역과 설교에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다(마 11:5; 눅 4:18-19; 5:32; 7:22; 14:13; 14:21). 예수 역시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인간들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요 3:16, 요 1:12-13).

예수는 소외된 자들 즉 가난하고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 눈먼 자, 앓은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창기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귀신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내세웠다.⁷⁵⁾

네 페이지 설교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은혜를 강조한다. 네 페이지 설교는 주해와 적용 외에도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총의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준다.⁷⁶⁾

2. 전달 방법적 측면

네 페이지 설교는 시각화(영화화)를 통해 청중들이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떠올리게 함으로써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문장이 바깥에 따라 감각적인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말에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 말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⁷⁷⁾

예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다. 씨(마 13:24, 막 4:26), 겨자씨(마 13:31, 막 4:31, 눅 13:19), 누룩(마 13:33, 눅 13:21), 보화(마 13:34), 진주(13:45), 그물(마 13:47) 등 한번 듣기만 하여도 금방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네 페이지 설교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방법에는 유사점이 있다.

75)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57.

76)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1.

77)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150.

제 7 절 요약 및 결론

앞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삶의 구조적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자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중들에게 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설교 방법으로는 Paul Scott Wilson이 제안하고 있는 네 페이지 설교로 주해와 적용 외에도 하나님의 활동과 은혜를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 4 장

미주 한인교회의 설교 분석 및 평가

2장과 3장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포스트모던 청중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된 네 페이지 설교가 내용과 전달 방법에 있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제 이 장에서는 미주 한인교회의 설교를 하나님 나라 복음과 네 페이지 설교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표본교회들의 설교분석의 범주들

3천개가 넘는 미주 한인교회의 모든 설교를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몇 개의 교회들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고 이 교회들에서의 행해진 설교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표본 교회는 교파를 고려하여 5개 교회를 선정했다. 장로교파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합동 교단 측에 소속된 은혜한인교회, 감리교파 연합감리교단에 소속된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미남침례회 소속의 얼바인침례교회, 미국장로교단 센 가브리엘 노회 소속의 선한목자장로교회, 장로교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소속의 충현선교교회 등이 그것이다.⁷⁸⁾

설교의 분석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의 주일 설교로 범위를 한정했다. 각 교회에서의 주일 설교의 분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랐다; (1) 설교의 본문과 내용 분석, (2) 설교의 구성 분석,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78) 원래 나성영락교회와 남가주사랑의교회 이 두 교회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담임목사의 부재로 인해 2011년의 설교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에 부득이 제외하였다.

설교 본문과 내용 분석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시적 설교를 몇 회나 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폈고, 본문에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도 그 내용상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설교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교 제목과 내용에 근거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제 2 절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는 장로교파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교단 측에 소속돼 있는 남가주 노회 소속교회로 1982년에 창립되어 현재 56개국에 27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은혜한인교회의 선교 목표는 2020년까지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며 초대 담임목사였던 김광신 목사를 이어받아 2대 담임목사인 한기홍 목사가 모든 선교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주일예배의 설교는 주로 한기홍 담임목사가 했다. 설교는 2011년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1년간의 설교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설교 수집은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홈페이지와 은혜한인교회 홈페이지 등에 근거하였다. 1년간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⁹⁾

설교자: 한기홍 목사

설교일자: 2011.01.02.-2011.12.25.

자료원: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홈페이지(<http://www.kcmusa.org>)

 은혜한인교회 홈페이지(<http://www.gracemi.com>)

79) 은혜한인교회의 설교정보는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홈페이지(<http://www.kcmusa.org>)와 은혜한인교회 홈페이지(<http://www.gracemi.com>)에 등재된 설교 횟수에 근거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제 목	본 문	일자
1.	새해에는 형통한 자가 됩시다	시 1:1-6	2011.01.02
2.	새해에는 형통한 자가 됩시다	창 29:1-6	2011.01.09
3.	새해에는 형통한 자가 됩시다	대하 20:20-30	2011.01.16
4.	새해에는 형통한 자가 됩시다	시 122:1-9	2011.10.23
5.	새해에는 형통한 자가 됩시다	왕하 2:1-4	2011.01.30
6.	신앙의 불붙는 마음을 가지라	렘 20:7-13	2011.02.06
7.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 6:1-16	2011.02.13
8.	풍랑 속에 찾아오신 주님	마 14:22-23	2011.02.27
10.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	눅 4:16-19	2011.03.06
11.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벧전 4:7	2011.03.20
12.	잡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엡 5:14	2011.03.27
13.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행 16:11-18	2011.04.03
14.	바벨탑을 쌓지말자	창 11:1-9	2011.04.16
15.	주님, 왜 우십니까	눅 19:41-46	2011.04.17
16.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	고전 15:51-58	2011.04.24
17.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창 1:27-28	2011.05.01
18.	참된 효도는 못처럼	룻 1:15-18	2011.05.08
19.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	히 6:13-15	2011.05.15
20.	하나님은 잊지않고 기억하신다	히 6:10	2011.05.22
21.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떠나신다	대하 16:7-14	2011.05.29
22.	기도응답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자	눅 18:1-8	2011.06.05
23.	영안이 열려야 만사가 열린다	왕하 6:8-17	2011.06.12
24.	한 가지 잘해서 복받은 사람	마 26:6-13	2011.06.19
25.	감사를 잘 표현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 116:12-19	2011.06.26
26.	하나님께 뽑힌 자가 되자	사 7:1-8	2011.07.10
27.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마 4:1-11	2011.07.24
28.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기자	단 6:10	2011.07.31
29.	절망에서 탈출하여 비전을 이루라	왕상 19:7-8	2011.08.07
30.	이것만은 성공하십시오	요 15:1-11	2011.08.21
31.	사다리 은혜를 받자	창 28:10-22	2011.09.04
32.	말씀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이다	눅 22:7-13	2011.09.25
33.	연합은 아름다워라	시 133:1-3	2011.10.02
34.	불행이 행복으로	요 5:1-5	2011.10.09
35.	가장 좋은 소문을 전하자	마 9:27-31	2011.10.16
36.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자	행 3:1-10	2011.10.23
37.	행복한 마남	요2서 1:12	2011.10.30
38.	주께 보여드리자	출 23:14-17	2011.11.06
39.	내 집을 채우라	눅 14:15-24	2011.11.13
40.	김사가 넘치는 삶이 됩시다	골 2:6-7	2011.11.20
41.	매인것이 풀어져야 열린다	마 18:18	2011.11.27
42.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	눅 2:8-14	2011.12.18
43.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눅 2:1-7	2011.12.25

<표 2> 은혜한인교회 주일 설교 목록

1. 설교의 내용 분석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의 1년 설교 43편 가운데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 언급된 구절에 근거한 설교는 없었다. 그러나 주제별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 10편, 믿음 5편, 전도 5편, 형통 5편, 축복 2편, 은혜 2편, 성공 2편, 변화 2편, 승리 2편, 믿음 2편, 그 외에 연합, 예배, 비전, 감사, 행복, 심판, 약속, 효도, 행복, 헌신, 기도응답, 자유, 사랑, 등이 각각 1편씩으로 그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것,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이 포함되어있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신, 구약 성경 중에 설교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된 책은 다음과 같다. 구약에서는 레, 민, 신, 수, 사, 삼상, 삼하, 역상, 스, 느, 에, 욥, 잠, 전, 에, 호, 율, 암, 욥, 은, 미, 나, 합, 습, 학, 속, 말로서 27권이었으며 신약 성경에서 누락된 책은 막, 롬, 고후, 갈, 빌, 살전, 살후, 딤펴, 딤후, 딤편, 몬, 약, 요일, 요삼, 유, 계 등 총 16권이였다.

총 43편의 설교가운데 구약 본문이 19편이었으며 신약 본문은 24편이었다. 구약 본문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살펴보면 형통, 바벨탑, 효도, 열정, 사랑, 성공, 영안, 감사, 뽑힌 자, 고비, 비전, 은혜(축복), 연합 등이었다. 신약 본문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살펴보면 믿음, 자유, 기도, 우선순위, 영적근면, 주님의 우심, 부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억, 기도응답, 제자도, 승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순종, 행복, 전도, 변화, 만남, 풀어짐과 열림, 감사,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을 위한 방 등이었다.

2. 설교의 구성 분석

한기홍 목사의 설교는 크게 주해와 적용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본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간다.

한기홍 목사의 2011년 9월 4일자 설교가 이와 같은 구성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아래는 한 목사의 설교를 그 특성을 살려되 가능한 필자가 이해한 말로 재구성하여 요약한 것이다.

No 1

제목: 사다리 은혜를 받자

본문: 창 28:10-22

서론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패배하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된다.

본론

그렇다면 사다리 은혜란 무엇인가?

첫째,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야곱에게 전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다.

둘째,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세 가지로 1. 땅에 대한 약속 2. 자손에 대한 축복 3.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는 것이었다. 지금이 마지막 종말의 때로서 선교에 힘써야 할 때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이 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셋째,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으니까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사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님께 한 서원은 그대로 1. 나의 하나님 - 평생 하나님을 주로 섬기겠다는 고백 2.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약속(교회) 3. 십일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이 이십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 31:38-40).”

결론

하나님께서 허락한 노동은 거룩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귀하게 여겨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사닥다리 은혜를 받기 바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기홍 목사의 설교는 서론에 이어 본론은 3개의 대지로 제시되고 결론으로 끝맺음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지 1. 사닥다리 은혜란? - 주해/적용
2. 꿈과 비전을 가지라 - 주해/적용
3.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 주해/적용

주해와 적용 두 부분으로 구성된 점에서, 그리고 3대지 구성을 따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설교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교방식은 위에서 예로 든 설교뿐만이 아니라 분석 대상으로 삼은 2011년 주일 설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럼 여기서 한기홍 목사의 다른 설교 한편 (2011.06.19자 설교)을 소개하며 그 구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No 2

제목: 한 가지 잘해서 복 받은 사람

본문: 마 26:6-13

서론

어느 분야든 한 가지에 통달하여 뛰어난 실력을 가지는 것을 달인 혹은 고수라고 한다. 신앙생활도 달인이 되어야 한다. 한 분야에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 가지 잘해서 축복받은 여인이 있다. 옥합을 준비해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은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는 큰 축복을 받았다. 요 11:2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만 잘해도 큰 축복을 받는다.

본론

첫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결단을 해야 한다. 믿음의 결단은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잘함으로 축복을 받았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백세에 얻은 아들도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 갈렙, 라합, 에스더, 탕자 등 이 모두가 결단을 잘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았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도 이제부터 믿기로 결단하면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둘째,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때에 기도 한 번 잘함으로써 응답을 받기도 한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래서 그 아우 아벨을 쳐죽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자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고 기도함으로써 표를 얻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셋째,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황해도에 박연순 집사라는 분이 계셨다.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집이 너무 가난하여 드릴 것이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논 서너 마지기가 전부였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의논하여 그 논을 팔아 성전건축헌금을 드렸다. 이에 감동한 맥컨 선교사가 그 아들을 공부시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는 예일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연희전문학교(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백낙준 박사이다.

결론

헌신의 기회는 많지 않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 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가 곧 기회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기홍 목사의 설교는 서론에 이어 본론에 세 개의 대지, 그리고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다.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 본론에 세 개의 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한기홍 목사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 대지 1. 결단해야 한다 - 주해/적용
2. 거룩한 기도 - 주해/적용
3. 온전한 헌신 - 주해/적용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설교 전달방법을 분석함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방식(구약의 메시지 성취의 도식, 경구/잠언, 비유/이야기/그림 언어)과 네 페이지 설교의 구성 방식(첫 번째 페이지: 본문에 나타난 문제; 두 번째 페이지: 우리 세상 속의 문제; 셋째 페이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페이지: 우리 세상 속의 하나님의 은혜; 시각화)이다.⁸⁰⁾

우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세 가지 방식과 한기홍 목사의 첫 번째 설교(No1) 전달 방법을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구약 성취의 도식으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예언과 연결시켜 오늘날 이 말씀들이 성취된 방식에 주목하지 않는다. 둘째로, 경구(잠언)와 같은 짧지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로, 적지만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네 페이지의 전달방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위에서 제

80)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1, 150.

시한 한기홍 목사의 설교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성경 속에서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 상황이 대두되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야곱이 당하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로,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야곱의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대입시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셋째로,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급은 나오는데 한 목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이 은혜를 표현한다. 넷째로,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속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상황 그 자체에만 무게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다섯째로, 네 번째 페이지 설교는 감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 어떤 이미지를 떠올림으로써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것으로서 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맛보게 하는 시각화를 강조한다. 한 목사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림 언어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설교(No2)도 동일한 기준(예수의 선포방법과 네 번째 페이지 설교의 원리, 시각화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예수의 선포방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예수는 구약 성취의 도식, 잠언/경구, 이야기(그림 언어)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하셨다. 한기홍 목사의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볼 때 구약 성취의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저 현재 상황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잠언/경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림 언어(논 서너 따지기, 성전건축헌금)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페이지 설교원리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네 번째 페이지 설교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본문 속 문제, 두 번째 페이지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 세 번째 페이지는 본문 속 은혜, 네 번째 페이지는 우리 세상 속의 은혜, 그리

고 시각화이다.

한기홍 목사의 설교는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마리아가 옥합을 드린 것은 좋은 일이나 마리아처럼 옥합을 드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마리아의 입장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진실된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이며 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 은혜에 대해서는 옥합(향유)을 드려 받은 축복에 대해 말하면서 이 여자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삶의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언급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에서 사례로 제시한 두 편의 설교를 놓고 볼 때 한 목사의 설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달 방식에 비길만한 특징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네 페이지 설교의 세 페이지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네 페이지 설교의 전달 방식과도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인다.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논 서너 마지기, 성전건축헌금)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림 언어가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론은 2011년 설교 대부분에 대해 적절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3 절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는 감리교파 연합감리교단(UMC)에 소속된 교회로서 2002년 5월 창립했으며 현 담임목사는 림학춘 목사로서 교회의 표어는 큰 능력, 큰 은혜, 큰 두려움이 나타나는 교회이다. 선교현황으로는 공주 소망의 집과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문화 선교로는 하늘 콘서트 및 B-Teens 초청 청소년 찬양집회 및 성극(영문 밖의 길)을 공연한다. 주일 예배는 림학춘 목사가 주로 했으며 3명의 다른 설교자가 있다.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일설교는 2011년 1월 첫 주부

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1년간의 설교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설교 수집은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와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에 근거하였다. 1년간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¹⁾

설교자: 립학춘 목사

설교일자: 2011.01.02.-2011.12.25.

자료원: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http://www.kcmusa.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lagunamc.org>)

	제 목	본 문	일 시
1.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	고후 4:6	2011.01.02
2.	세례는 바로 세우라는 명령이다	마 3:13-17	2011.01.09
3.	농부가 밤낮 밭만 갈겠느냐	사 28:23-29	2011.01.16
4.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	고전 1:25	2011.01.23
5.	성숙한 믿음	단 3:13-18	2011.01.30
6.	최상주님께 최선을 다하여라	마 5:13-20	2011.02.06.
7.	성숙한 사람이 되라	마 5:46-48	2011.02.13
8.	성숙한 사람이 되라(2)	마 5:46-48	2011.02.20
9.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눅 17:5-10	2011.02.27.
10.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눅 8:27-36	2011.03.06
11.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 4:1-11	2011.03.13
12.	주 예수님의 재림	계 22:16-21	2011.03.20
13.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엡 6:10-18	2011.03.27
14.	악마에게 간계에게 맞설 수 있도록	엡 6:10-18	2011.04.03
15.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무장 하십시오	엡 6:10-18	2011.04.10
16.	언제나 성령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엡 6:18	2011.04.17
17.	부활을 살라	골 3:1-4	2011.05.01
18.	부모님의 유산	딤후 1:3-7	2011.05.08
19.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라	벧후 1:10-15	2011.05.15
20.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행 7:55-60	2011.05.22
21.	사랑하면 지킨다	요 14:15-21	2011.05.29
22.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	행 1:1-11	2011.06.05
23.	약속하신 성령의 내려오심	행 2:1-4	2011.06.12
24.	아빠, 아버지	롬 8:14-17	2011.06.19
25.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창 39:1-9	2011.06.26

81) 설교 정보는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http://www.kcmusa.org>)와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lagunamc.org>)에 등재된 설교 횟수에 근거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각 교회마다 설교 횟수가 다른 것은 각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설교 횟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26.	먼저 가서 화해하여라	마 5:24-25	2011.07.03
27.	요셉의 인생레슨	창 45:1-8	2011.07.10
28.	야곱의 하나님	창 28:10-22	2011.07.17
29.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벧전 1:17	2011.07.24
30.	다시안수해서라도	막 8:8-15	2011.07.31
31.	물위를 걸으려면	마 14:22-23	2011.08.07
32.	그러므로 주신 자유를 꼭 붙드십시오	갈 5:1	2011.08.14
33.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롬 12:1-8	2011.08.21
34.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롬 12:9-21	2011.08.21
35.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롬 13:11-14	2011.09.04
36.	지금 이 어느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됩니다	롬 13:11-16	2011.09.11
37.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죽어서는 그분의 선물	빌 1:25-30	2011.09.18
38.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빌 2:1-13	2011.09.25
39.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요 12:23-26	2011.10.02
40.	그러므로 굳건히 서십시오	빌 4:1-9	2011.10.09
41.	나는 성도다(양성진)	고전 1:1-9	2011.10.14
42.	믿음의 본질(정도영)	막 8:34	2011.10.23
43.	행복(이은철)	마 5:3-10	2011.11.06
44.	오늘 선택하라	수 24:14-15	2011.11.06
45.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하십시오	살전 5:16-18	2011.11.13
46.	깨어있으라	막 13:28-37	2011.11.20
47.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벧후 3:8-15	2011.11.27
48.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전 5:16-24	2011.12.11
49.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노래	롬 16:25-27	2011.12.18
50.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사 7:14	2011.12.24
51.	우리 가운데 사신 하나님	요 1:14	2011.12.25

<표 3> 라구나힐스UMC 주일 설교 목록

1. 설교의 내용 분석

립학춘 목사의 1년간의 설교를 분류해 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언급된 구절에 근거한 설교는 3편(천국-마5:13-20, 하나님의 나라-눅9:27-36,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벧후1:10-15)으로 총 51편 설교 가운데 약 5퍼센트 정도였다.

주제별로 살펴보았을 때 믿음 10편, 영적건강 3편, 성숙 2편, 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계획, 소망, 선택, 행복, 희생, 영적근면, 굳건함, 부르심과 택하심, 부활, 제자도, 신앙의 유산, 영광, 기도, 하나님의 경고, 세례, 사랑, 최선, 시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승천, 자유, 화해, 요셉, 야곱, 말씀, 변화, 나그네 삶, 섬김, 영안, 말세, 구원, 안수, 등이 각 1편씩으로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설교에서 강조되기 때문에 내용 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 본문에 사용되지 않은 누락된 성경책은 다음과 같다. 구약에서는 창, 수, 사, 단 을 제외한 구약 39권중 35권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막, 고후, 살후, 딤편, 딤편, 히, 약, 요일, 요이, 요삼, 유, 계 등 신약 27권 중 13권이였다.

구약 성경 본문의 주제는 지혜, 믿음, 하나님의 계획, 요셉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였으며 신약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알라, 세례, 믿음, 성숙, 최선, 영광, 시험의 틈, 재림, 준비, 능력, 영적무장, 기도, 부활, 유산, 부르심과 택하심, 제자도, 사랑, 예수님의 승천, 성령강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화해, 하나님의 뜻, 나그네 삶, 안수, 섬김, 영안, 말세, 구원, 희생, 굳건함, 성도의 길, 행복, 선택, 감사, 영적근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기다림(재림), 충성,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등이였다.

2. 설교의 구성 분석

설교 구성은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된 구조였으며 설교의 형태는 제목설교와 본문설교를 합한 형태였다. 제목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설교였으나 본문에 입각한 설교였다.

림학춘 목사의 2011년 11월 27일 주일설교를 예로 들어 설교의 구성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No 1

제목 : 이 한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본문 : 벴후 3:8-15

들어가는 말 (서론)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용서하고 즉시 잊어버려야 한다.

본론

첫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알기만 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둘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힘쓴다는 것은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산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고대해야 한다.

셋째,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맺는 말(결론)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왜 주님의 재림이 더딘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주심에 응답해야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립학춘 목사의 설교 구성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말(서론)에 이어서 본론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대지로 제시하고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 대지 1. 방심하지 말 것. - 주해/적용
2.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 - 주해/적용
3.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라. - 주해/적용

림 목사의 설교는 한기홍 목사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에 세 개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립학춘 목사의 다른 설교 한편 2011. 07.24자 설교 한편을 소개하면서 그 설교의 구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No 2

제목: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본문: 벧전 1:17

서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인생은 한정된 시간 밖에 없다. 그러기에 곁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나그네 인생이다.

본론

첫째, 남을 용서해야 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같다. 용서하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앞길을 갈 수 있다. 용서는 회복 지향적 삶을 살게 한다.

둘째,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손에 든 것은 되도록 가볍고 단순하게 해야 한다.

셋째, 단풍과 황혼같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발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석양과 같다.

결론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삶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림학춘 목사의 설교 구성은 서론, 본론(세 개의 대지) 결론의 순으로 되어있다.

- | | |
|--------------------------|---------|
| 대지 1. 남을 용서해야 한다 | · 주해/적용 |
| 2.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 - 주해/적용 |
| 3. 단풍과 황혼과 같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 | - 주해/적용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림학춘 목사의 설교는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서론과 본론으로 세 개의 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론으로 마무리짓고 있다.

이런 설교 패턴은 림학춘 목사의 2011년 설교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먼저, 위에 제시한 림 목사의 첫 번째 설교 전달방식(No1)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방식⁸²⁾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림 목사는 서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는 도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둘째로, 림 목사는 설교에서 짧지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구/잠언을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로, 림 목사는 설교에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1년 10월 2일자 설교에서 밀알을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요 12:23-26).

다음으로, 림 목사의 설교를 네 페이지 전달방법과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위에서 림학춘 목사의 설교를 살펴보건대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 문제가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성경 본문 속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둘째로,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본문 속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지,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우리 세상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셋째로,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 은혜도 거론하지 않는다.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넷째로,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시각화에 특성 역시 림 목사의 설교에서는 그다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림학춘 목사의 두 번째 설교(No2) 역시 같은 관점(예수의 선포방식, 네 페이지 설교의 원리 및 시각화)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예수의 선포방법(구약 성취의 도식, 잠언/경구, 이야기/그림 언어)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간이 흐르면 외모는 변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겉

82) 본 논문의 페이지 39-41을 참조하라.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구약 성취의 도식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 잠언/경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림 언어는 드물지만 사용했다. 특히 인생을 단풍과 황혼에 비겨 설명하는 시도에서 그림 언어의 사용이 돋보인다.

그 다음은 네 페이지 설교 원리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결모습이 변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이 용서하면 회복 지향적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세상 속의 문제가 무엇이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셋째로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으며 넷째로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그저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립학춘 목사의 설교 전달방법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방식이나 네 페이지 설교의 전달 방식과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교의 패턴은 립학춘 목사의 2011년 설교 대부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립학춘 목사의 설교는 네 페이지 설교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제 4 절 엘바인침례교회

엘바인침례교회는 침례교파의 미남침례회(SBC)교단 소속 교회로 다음과 같은 4대 비전을 가지고 있다;

- 첫째, 인재양성(미국의 차세대 지도자양성)
- 둘째,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실내 체육관, 서점, 만남의 공간)
- 셋째, 중국 및 북한을 비롯한 세계 선교(전 세계에 500여개 교회를 세울 것을 목표로 함)
- 넷째,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과 Irvine 침례교회간의 Network을 형성하여 목회정보, 목회자, 목회후보생 등 모든 인적, 물질, 영적 resources를 긴밀히 교류하는 Global Church로 나아간다.

주일예배 설교는 한종수 목사가 했다. 설교는 2011년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1년간의 설교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설교 수집은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와 얼바인침례교회 홈페이지에 근거하였다. 1년간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³⁾

설교자: 한종수 목사

설교일자: 2011. 01.02-2011.12.25.

자료원: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http://www.kcmusa.org>)

얼바인침례교회 홈페이지(<http://www.irvinechurch.com>)

	제 목	본 문	일 시
1.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고후 1:20	2011.01.06
2.	회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요 4:9-19	2011.01.30
3.	보호로 채우시는 하나님	시 91:2-15	2011.02.06
4.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	골 2:6-7	2011.02.13
5.	권세로 채우시는 하나님	요 1:12	2011.02.20
6.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요 14:21-23	2011.02.27
7.	믿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히 11:1	2011.03.06
8.	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약 1:5	2011.03.13
9.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롬 8:17-18	2011.04.03
10.	겸손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빌 2:2-9	2011.04.10
11.	왕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마 2:1-9	2011.04.17
12.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법	벧전 5:7	2011.05.08
13.	두려움을 날려 보내는 법	막 4:35-41	2011.05.15
14.	건고한 진을 날려버리려면	고후 10:4-5	2011.05.22
15.	열등감을 날려버리려면	사 43:1	2011.05.29
16.	죄책감을 날려버리려면	롬 8:1-2	2011.06.05
17.	거절감을 날려버리려면	롬 8:31-35	2011.06.12
18.	아버지의 유언	왕상 2:1-4	2011.06.19
19.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	왕상 2:4-6	2011.07.03
20.	축복의 비밀	왕상 6:11-13	2011.08.07
21.	하나님은 왜 성전을 원하셨는가	왕상 8:11	2011.08.14
22.	하나님은 왜 성전을 원하셨는가(2)	왕상 8:11	2011.08.21
23.	당신의 지경을 넓히라	왕상 9:15-23	2011.09.04
24.	어리석은 지혜자	왕상 11:3-13	2011.09.11

83) 설교정보에 관해서는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http://www.kcmusa.org>)와 얼바인침례교회 홈페이지(<http://www.rivinechurch.com>)에 등재된 설교횟수를 참조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각 교회의 설교횟수가 다른 것은 각 교회에서 제공하는 설교 횟수가 다르기 때문이며 필자는 각 교회에서 제공하는 설교횟수에 근거하였음을 재차 밝혀두는 바이다.

25.	교만한 왕	왕상 12:1-17	2011.09.18
26.	개혁과 회복	왕상 15:11-15	2011.10.09.
27.	감사하는 자의 축복	시 103:1-5	2011.10.16
28.	영적대결	왕상 18:39	2011.11.06.
29.	더 이상 살고싶지 않은 적이 있나요	왕상 19:9-21	2011.11.13
30.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왕상 21:19-29	2011.11.29
31.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눅 1:26-38	2011.12.11
32.	아름다운 기다림	눅 2:25-33	2011.12.18

<표 4 > 엘바인침례교회 주일설교 목록

1. 설교의 내용 분석

한중수 목사의 2011년 한 해 동안의 설교를 주제별로 분류해 본 결과 하나님 나라가 명시된 본문은 없었다. 주제별로 살펴보자면 복에 관한 것이 5편, 그 외에 성전 두 편, 회복, 보호, 감사, 권세, 기적, 믿음, 지혜, 영광, 겸손, 왕권, 스트레스, 두려움, 견고함, 열등감, 죄책감, 거절감, 기초, 어리석음, 교만, 개혁, 영적대결, 좌절, 열매, 성탄, 기다림 등이 각각 1편씩으로 그 내용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다.

구약에서 시편과 이사야, 왕상을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36)이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신약은 행전, 갈, 엡, 살전, 살후, 딤후, 딤후, 딤후, 딤후, 딤후, 딤후, 딤후, 딤후, 요일, 요이, 요삼, 계 등 신약 27권중 14권이 사용되지 않았다.

구약 본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보호, 유언, 인생의 기초, 축복, 성전, 삶의 지경, 어리석음, 교만, 개혁과 회복, 감사, 영적대결, 좌절감, 열매 등이었으며 신약 본문의 주제는 복, 회복, 감사, 권세, 기적, 믿음, 지혜, 영광, 겸손, 왕권, 스트레스, 두려움, 견고한 진, 죄책감, 거절감, 성탄, 기다림 등이었다.

2. 설교의 구성 분석

한중수 목사의 설교 특징은 주제별 시리즈 설교이다. 2011년 1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11주 동안 “채운다”는 제목으로, 5월 8일부터 6월 12일 6주 동안은 “날려 보내는 법”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다. 또 8월 14일과 21일 두 주일동안 “성전”을 주

제로 연속 설교를 하였다.

한종수 목사의 2011년 4월 3일자 주일 설교를 예로 들어 설교의 구성을 분석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No 1

제목: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본문: 롬 8:17-18

들어가는 말(서론)

어떤 큰 건축회사 사장이 휴가를 떠나면서 한 건축가에게 집을 지을 것을 당부하고 떠났다. 재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정성을 다해 집을 지을 것을 당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건축가는 '주인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짓겠어? 그냥 대충 지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날림으로 집을 지었다. 얼마 후에 그 사장이 돌아와서 그 건축가를 불렀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집문서) 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이 집을 자네에게 주겠네. 사실 난 자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집을 지으라고 했네!'라고 말했다.

본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웠냐에 따라 보상과 심판으로 보응하신다. 썩을 것으로 채웠으면 썩을 것으로, 영광으로 채웠으면 영광으로 채워주시길 원한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구속이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세상 영광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광을 바라라. 세상 영광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칭찬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

원한 영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친다.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가야만 한다. 삶의 토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신다.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강이다.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이다. 그런데 어떻게 9.11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18).

둘째, 어떻게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신다.

세계 경제 3대 강국이라던 일본을 보라! 진도 9.0의 지진이 오자 쓰나미(물벽)가 한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진도 7.0 - 8.0의 여진이 몰아닥치자 원자로나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며 경제가 악화되어 고난을 겪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슬픔은 잠깐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난 받지 않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고난 받지 않는 길은 불티나 티끌과 같다.

셋째,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인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바꿔야 한다. 영광과 존귀는 시련과 고난 뒤에 온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광으로 채워질 뿐 아니라 영원하다.

결론(맺는말)

고난을 싫어하거나 피하면 안 된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수 목사의 설교는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지를 세 개로 나눈다는 점에서 전통방식을 따르고 있다.

- 대지 1.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 주해/작용
 2.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 주해/적용
 3.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인가? -주해/ 적용

그렇다면 여기서 한중수 목사의 2011.05.18자 다른 설교 한편을 소개하며 그 구성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No2

제목: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법

본문: 벰전 5:7

서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주된 이유는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온다. 그리고 정신질환 또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없다면 어떤 일을 할 의욕과 열정도 없고 성취감도 없다. 사람이 빨리 늙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마음의 시계라는 책에 보면 내 나이에 이견 못해 하면서 미리 자신을 구속하고 제한하면 멍하게 되고 빨리 늙게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듯이 좋은 스트레스는 남기고 나쁜 스트레스는 날려 보내야 한다.

본론

첫째, 일정(우리 일생의 날 - 연수)을 점집하라.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

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은 나중에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가? 예배, 기도, 큐티, 남을 도와주는 것 등이 중요한 일이다. 급한 일은 돈벌이,페이먼트, 급한 라이드를 부탁받았다든지 하는 것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마 6:33)이다. 새벽기도를 하면 심령(정신)이 맑아진다. 그때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중요한 일(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둘째, 말을 점검하라. 말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도 하고 욕되게 하기도 한다. 말을 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은 배의 키와 같다.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남이 하는 말은 잘 듣고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셋째, 심령(생각)을 점검하라. 그 사람의 생각이 곧 인격(관심사)이다. 헛된 생각은 경박한 인격을 만든다. 훌륭한 심령(생각)은 훌륭한 인격을 만든다. 예를 들면 선교, 선교지에 교회, 병원, 고아원 등을 세우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훌륭한 생각이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유의해야 할 것은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들이다. 돈(물질)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만족함은 예수를 영접하는 데서 온다. 곧 만족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돈은 사람이 벌지 몰라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파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링거를 꽂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자해야 한다.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구제 헌금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즉 투자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 포도원 주인이 돈을 벌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가? 아니다 월급을 주기 위해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이다.

결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 돈을 내가 가지려 한다든가 나를 위해 쓰려고 한다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벌어야 한다. 그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공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오천명 분을 혼자 먹여 치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천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수 목사의 설교는 서론에 이어 본문으로 세 개의 대지를 구성하고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방식을 따르고 있다.

- 대지 1. 인생의 날수를 점검하라 - 주해/적용
- 2. 말을 점검하라 - 주해/적용
- 3. 심령(생각)을 점검하라 - 주해/적용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먼저 한중수 목사의 첫 번째 설교(No1)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방식과 네 페이지 설교원리 및 시각화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수의 선포방식(구약 성취의 도식, 잠언/경구, 이야기/그림 언어)과 네 페이지 설교원리 및 시각화의 관점에서 한중수 목사의 설교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한 목사는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예화로 설교를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인 것이 구약 예언에 근거하여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인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 나타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한 목사는 설교에서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경구나 잠언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네 페이지 전달방법과 비교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 목사는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는지(롬8:3-4)에 대한 설명이 없다. 둘째로,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롬8:12-13). 셋째로,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넷째로,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로,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집짓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종수 목사의 두 번째 설교(No2)를 예수의 선포방법(구약 성취의 도식, 잠언/경구, 이야기/그림 언어)과 네 페이지 설교원리 및 시각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약 성취의 도식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 구약에 예언(약속)된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의 현실에 구체화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오늘날의 상황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잠언/경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각화의 노력은 보이는데 병실, 링거 주사의 그림 언어로 표현한 방법들이 돋보인다.

그 다음은 네 페이지 설교원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겸손하라고 말하면서도 왜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겸손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종수 목사의 설교는 예수의 선포방식과도 관련성이 약할 뿐 아니라 네 페이지 설교원리로 분석해 보았을 때도 실질적 의미에서의 깊은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설교 분석을 통해 한종수 목사는 설교를 함에 있어 음성, 표정, 몸짓을 사용하여 흥미롭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점에서 네 페이지 설교의 시각화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제 5 절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는 장로교파 미국장로교단(PCUSA) 산 가브리엘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1975년 7월 21일에 창립되었으며 교회의 표어는 경건의 기초를 다지는 교회

로서 영감 넘치고 살아있는 예배를 중시한다. 자녀를 위한 금요 기도모임이 있으며 문화행사로써 송정미 콘서트(2004)를 열기도 하였다. 주일 예배는 주로 고태형 목사가 했다. 설교는 2011년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1년간의 설교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설교 수집은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와 선한목자장로교회 홈페이지에 근거하였다. 지난 1년간의 설교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⁴⁾

설교자: 고태형 목사

설교일자: 2011.01.02-2011.12.16.

자료원: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http://www.kcmusa.org>)

선한목자장로교회 홈페이지(<http://www.sunhanchurch.com>)

	제 목	본 문	일 시
1.	하나님의 눈으로	삼상 16:1-13	2011.01.02
2.	사람을 통한 훈련	삼상 18:5-19	2011.01.09
3.	그리스도를 옷입은 사람	갈 3:26-29	2011.01.06
4.	약한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삼상 19:1-17	2011.01.23
5.	두 번의 질문	삼상 9:18-24	2011.01.30
6.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삼상 19:18-24	2011.02.06
7.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삼상 22:6-23	2011.02.20
8.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삼상 22:1-19	2011.02.27
9.	하나님을 경회하기에	삼상 24:1-22	2011.03.06
10.	한참 걸립니다	삼상 25:1-26	2011.03.13
11.	알고 계십니까?	삼상 26:1-16	2011.03.30
12.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상 27:1-8	2011.03.27
13.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상 27:1-8	2011.03.27
14.	누구에게 가시렵니까	삼상 28:3-19	2011.04.10
15.	영광의 길인가	마 21:1-11	2011.04.17
16.	부활의 목격자	마 28:1-15	2011.04.24
17.	곤경속의 은혜	삼상 29:9-30	2011.05.01
18.	부모 공경이란	엡 6:1-3	2011.05.08

84) 각 교회의 설교 횟수가 다른 것은 각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설교 횟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각 교회에서 제공하는 설교 횟수에 근거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 어떤 교회는 1년에 32회, 다른 교회는 1년에 50회 정도로 한 해 설교횟수가 달랐다. 따라서 설교횟수를 통일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설교정보는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http://www.kcmusa.org>)와 선한목자장로교회 홈페이지(<http://www.sunhanchurch.com>)에 근거하였다.

19.	하나님의 평가	삼상 31:1-3	2011.05.15
20.	특별한 사람 다윗	삼하 1:1-3	2011.05.22
21.	정말 중요한 것은	삼하 2:1-3	2011.05.29
22.	하나님의 방법/사람의 방법	삼하 4:1-3	2011.06.05
23.	우리를 사로 잡으소서	행 8:14-24	2011.06.12
24.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행 4:23-35	2011.06.19
25.	성령의 열매	갈 5:22-26	2011.06.26
26.	로마방문의 앞두고	롬 1:8-15	2011.07.03
27.	나는 신자다	단 6:7-13	2011.07.24
28.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눅 15:3-7	2011.07.31
29.	작전 수행 중	롬 6:20-23	2011.08.07
30.	사람을 살리는 일	잠언 18:20	2011.08.14
31.	심고 거두는 법칙	갈 5:7	2011.08.21
32.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	수 23:14-18	2011.08.28
33.	올라갈까요?	삼하 5:17-25	2011.09.14
34.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고후 10:4-5	2011.09.11
35.	예비신자를 품으라	롬 10:11-15	2011.10.02
36.	만남이 주는 기회	요 1:45-49	2011.10.09
37.	오직 한 길	요 14:1-7	2011.10.16
38.	기도를 통해 일어난 일	행 16:16-34	2011.10.23
39.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 6:3-4	2011. 10.30
40.	섬김이 해답이다	요 13:4-5	2011.11.06
41.	영혼을 살리는 섬김	롬 10:13-15	2011.11.13
42.	감사를 선택한 사람	창 45:1-8, 50	2011.11.20
43.	경주하는 인생	히 12:1-3	2011.11.27
44.	행복의 조건	요 4:14	2011.12.04
45.	외로운 인생	시 39:4-7	2011.12.11
46.	목자가 되신 하나님	시 23:1-6	2011.12.16

<표 5> 선한목자장로교회 주일설교 목록

1. 설교의 내용 분석

고태형 목사의 한 해 설교 중 하나님 나라 본문이 명시된 본문은 없었다. 그러나 주제 별로 살펴본 결과 하나님의 기준 2편, 권능 2편, 섬김 2편, 하나님께 물음, 하나님 편, 훈련, 도움, 말씀성취, 경외, 도움, 다윗의 도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심, 영광, 부활, 은혜, 부모공경, 하나님의 평가, 특별함, 기쁨부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권능, 성령의 열매, 격려, 기쁨, 믿음, 하나님 마음, 열매, 말, 심고 거두는 법칙, 신앙의 가문, 처소, 두려움 극복, 만남, 기도, 말씀, 감사, 경주, 행복, 외로움, 하나님의 돌보심 등이 각각 1편씩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거의 모든 설교에서 다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설교라고 볼 수 있다.

설교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누락된 성경은 다음과 같다. 구약에서는 창, 수, 삼상, 삼하, 단, 잠, 시, 를 제외한 구약 32권이 본문에 인용되지 않았으며 신약에서는 마, 눅, 요, 행, 갈, 엡, 롬, 히, 요를 제외한 신약성경 18권이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총 50편의 설교 중 구약 본문이 28개 신약 본문이 22개로 구약 본문이 더 많았다.

구약 본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신앙적 관점, 훈련, 약자, 하나님 편, 복, 성취, 경외, 하나님을 의지함, 경외, 섬김, 보호, 지혜, 사울의 어리석음 은혜, 하나님의 평가, 특별함, 중요한 것, 일하는 방법, 신앙, 사람을 살림, 순종, 하나님의 말씀, 외로움, 목자 등이었으며 신약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 선교, 영광, 부활, 부모공경, 은총, 권능, 성령의 열매, 로마방문, 격려, 기쁨,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은사, 심고 거두는 법칙, 구원의 보편성, 만남, 오직 예수, 기도, 섬김, 경주, 행복, 등이었다.

2. 설교의 구성 분석

팔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고태형 목사의 설교는 다른 설교자들에 비해 짧으며 교리적인 설교로서 매우 복음적인 것이 특징이다. 설교 구성은 제목설교로 제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설교였다.

고태형 목사의 2011년 10월 16일자 주일설교를 예로 들어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No1

제목: 오직 한길

본문: 요 14:1-7

들어가는 말(서론)

일본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경하는 온천이다. 물이 너무 뜨거워서 섭씨 100도에 해당하는 온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만 한다. 그래서 그 온천은 지옥온천이라고 불린다. 이 온천이 너무 유명해져

서 그 온천을 돈 내고 입장해서 구경하는 관광지로 만들었다고 한다.

본론

지옥이 이렇게 돈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오는 관광지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것을 경고하셨지만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다. 모든 사람이 노아를 비웃었다. 그리고 노아 일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살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죽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 항변한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잘 산 것밖에 없는데 명품을 걸치고 다닌 것 밖에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하냐고. 나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별 보고 집을 나와서 밤늦게 일하면서 성실히 일한 것 밖에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하냐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남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하냐고.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한 길 뿐이다.

절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이라고 써 붙이고 불교는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관대하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왜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은가?’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

결론

구원은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다.

고태형 목사의 설교 구성은 주해와 적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지 구분 없이 서

론에 이어 본론과 결론을 차례로 제시한다;

- 죄 문제 해결(죽고 부활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 주해/적용
- 노아 홍수의 결과는 죽음 - 주해/주해
-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십자가) - 주해/적용

그럼 여기서 고태형 목사의 다른 설교 2011.06.19자 설교 한편을 소개함으로써 그 구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No2

제목: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본문: 행 4:23-35

서론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은 8년간 집권하면서 그 나라 백성 천백만 명 중 약 50만 명을 학살했다. 그 나라 총 인구 중 이십 명당 한 명꼴로 사람을 죽였다. 특히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하면서 무슬림으로 교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에 소지라는 한 목사님이 계셨다. 그는 예수 믿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창고에서 시작된 예배가 마당에서 하기에 이르렀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비밀경찰이 밤낮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 가운데 82명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 세례를 줘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궁 뒤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감히 대통령궁 뒤에서 세례를 줄 생각을 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다.

본론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과 같다. 군대에 지원하면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군인다워진다. 그런데 이 군인들을 이란에 파견하는데 무기를 주지 않으면 전

쟁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두 시간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느냐?'하는 것과 같다.

첫째,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걸인도 걷고 뛰놀게 한다.

둘째, 큰 능력이 일어난다. 연약한 사람은 살려내고 병자를 고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증거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드리는 일도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수입에 관계 없이 드릴 수 있다. 돈이 많아야 드릴 수 있는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것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영적 성숙과 은사는 비례하지 않는다. 직임도 여러 가지요, 역사도 여러 가지이다. 즉 직분과 역사는 연결되어 있다. 성령의 은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1906년 아주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것이 첫 번째 성령운동이다. 1960년대 2차 성령갱신운동이 일어났는데 방언을 오해해서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인식했다. 한국교회도 7-80년대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NASA의 한 과학자는 17년 동안 방언을 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7년 동안 방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낙심하였다. 그때 그의 동료 한 명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당신은 방언이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신 것 같군요.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1980년대 '세 번째 물결'은 성경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 즉 은사는 영적 성숙도와 비례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는데 왜 파벌과 다툼이 있었는가?

결론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다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

어 남을 도우는 것이다 사명을 행함에 있어 걸어가면서 하느냐(혼자서) 아니면 차를 타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태형 목사의 첫 번째 설교(No1)의 구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고태형 목사의 설교는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단 대지 구분이 없는 것이 다른 목회자와 구별되고 있다.

그럼 고태형 목사의 두 번째 설교(No2)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를 세 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 | | |
|------------------------|---------|
| 대지 1. 성령 충만은 능력을 덧입는다 | - 주해/적용 |
| 2. 큰 능력이 일어난다 | - 주해/적용 |
| 3. 영적 성숙과 은사는 비례하지 않는다 | - 주해/적용 |

3. 설교의 전달방법 분석

우선, 고태형 목사의 첫 번째(No1)설교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방식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구약 성취의 도식의 관점에서 볼 때 고 목사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성취되어 나타나고 있는냐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한다. 둘째로,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경구/잠언을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로,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은천)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네 페이지 설교의 전달방법에 근거하여 고태형 목사의 설교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의 문제(근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노아의 예를 들고 있다. 그것도 물론 예가 될 수는 있겠으나 설교는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생각해 볼 때 본문 속에 나타난 문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며 신앙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셋째로,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에 나타난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넷째로,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으로(행 4:12)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선포되고 있다. 다섯째로, 고태형 목사의 설교에서는 네 페이지 설교에서 강조하는 시각화가 적지만 사용하고 있다. (온천, 관광지로서의)

그럼 여기서 고태형 목사의 두 번째 설교(No2)를 예수의 선포방법(구약 성취의 도식, 잠언/경구, 이야기/그림 언어)과 네 페이지 설교의 원리(첫 번째 페이지: 본문 속 문제, 두 번째 페이지: 우리 세상 속의 문제, 세 번째 페이지: 본문 속의 은혜, 네 번째 페이지: 우리 세상 속의 문제 및 시각화)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구약 성취의 도식으로 고태형 목사의 설교를 살펴보았을 때 연관성이 없었다. 구약의 예언이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이디아민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다. 잠언/경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적지만 그림 언어(대통령궁)를 사용하고 있다.

네 페이지 설교의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복음전도를 방해하는 적대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왜 예수를 반대하는지 초대교회가 겪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이디아민의 박해를 말할 뿐이다. 우리 세상 속의 문제란 미주 한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적, 신앙적 문제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시각화는 적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있다 (차를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태형 목사의 설교는 예수의 선포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네 페이지 설교 원리와 시각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태형 목사의 한 해 설교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이 고태형 목사의 2011년 대부분의 설교에 대한 적절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6 절 충현선교교회

충현선교교회는 장로교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1985.08.11.에 창립되었다. 2002년부터 민중기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예배를 사역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표어는 화평, 기쁨, 섬김, 양육을 통하여 건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서 “불고기맛”이라는 아주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는 것으로 불신자를 불려서 복음으로 성도의 내면과 가정을 치유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신앙적 성장을 돕고 선교와 문화대변혁을 위하여 세속에 대항하는 구체적 삶의 비전이다. 주일설교는 주로 민중기 목사가 했다. 2011년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1년간의 설교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설교 정보는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와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에 근거하였다. 1년간의 설교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⁵⁾

설교자: 민중기 목사

설교일자: 2011.01.02-2011.12.25

자료원: 재미한인기독교재단 홈페이지(<http://www.kcmusa.org>)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http://www.chunghuyn.org>)

	제 목	본 문	일 시
1.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 26:10-13	2011.01.02
2.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출 19:1-6	2011.01.16
3.	마중물 같은 사람 바나바	행 9:26-31	2011.02.06
4.	하나님의 짝사랑	호 2:14-23	2011.02.13
5.	광야에 피어난 우정의 꽃	삼상 20:30-42	2011.02.20
6.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약 1:1-11	2011.03.06
7.	너의 본 모습을 가지라	약1:12-18	2011.03.13
8.	공격적인 신앙을 위하여	약 1:19-27	2011.03.20
9.	가난한 사람 사랑하기	약 2:1-7	2011.03.27
10.	가난한 사람 사랑하기(2)	약 2:8-13	2011.04.03
11.	산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나	약 2:14-26	2011.04.10
12.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왕	시 110:1-7	2011.04.17
13.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눅 24:44-49	2011.04.24

85) 각 교회마다 설교의 횟수가 다른 것은 각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설교 횟수가 다르기 때문이며 필자는 각 교회에서 제공하는 설교 정보를 근거로 하였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14.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귀한 선물	삼상 3:1-9	2011.05.01
15.	왜 한 남편에 한 아내인가	말 2:10-16	2011.05.08
16.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벧후 3:1-13	2011.05.15
17.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마 6:25-34	2011.05.29
18.	인간관계의 달인 다윗	삼하 2L1-9	2011.06.05
19.	하나님이 자신의 발 들 곳을 영화롭게 하시다	사 66:10-14	2011.06.12
20.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마 5:13-16	2011.06.19
21.	자기 혀를 재갈 물려라	약 3:1-12	2011.06.26
22.	소금샘에서 단물이 나올까	약 3:5-12	2011.07.03
23.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약 3:13-18	2011.07.10
24.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 4:1-6	2011.07.17
25.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약 4:7-12	2011.07.24
26.	형제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약 4:11-12	2011.07.31
27.	비전과 욕심의 차이	약 4:13-17	2011.08.07
28.	좋은 부자와 나쁜 부자	약 5:1-6	2011.08.21
29.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	약 5:7-12	2011.08.28
30.	기도의 능력	약 5:13-20	2011.09.04
31.	궁창의 빛같이 영원한 별처럼	단 12:1:1-13	2011.09.11
32.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단 10:1-12	2011.09.18
33.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요일 4:7-16	2011.09.25
34.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	시 41:1-13	2011.10.16
35.	내가 그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시 12:1-8	2011.10.23
36.	너희가 리위야단을 아느냐	욥 41:1-11	2011.10.30
37.	그리스도 예수와 공중권세 잡은 자	엡 2:1-10	2011.11.16
38.	붉은 줄로 맨 창문	수 2:12-21	2011.11.13
39.	나는 누구인가?	창 14:13-24	2011.11.20
40.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시 18:1-12	2011.11.27
41.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	엡 4:11-16	2011.12.04
42.	진정한 회심의 열매	삼상 7:13-14	2011.12.11
43.	숨기고 싶은 이야기	마 1:1-11	2011.12.18
44.	숨길 수 없는 이야기	마 1:18-25	2011.12.25

<표 6> 충현선교교회 주일설교 목록

1. 설교의 내용 분석

민중기 목사의 일 년 설교 중 하나님 나라 본문(설교 본문에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 언급되어 있는)은 없었다. 그러나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 4편, 신앙 2편, 사랑 2편, 규례와 계명, 제사장 나라, 바나바, 하나님의 사랑, 우정, 좋은 일, 시련극복, 시험, 절제, 의지, 증인, 하나님의 선물(사무엘), 가정의 원리(한 남편과 아내), 주의 날, 하나님의 돌보심, 인간 관계(다윗), 하나님의 발들 곳 영화롭게 하심, 소금과 빛, 혀를 재갈 물려라, 소금 샘과 단물, 지혜, 겸손함, 비판하지 말라, 좋

은 부자와 나쁜 부자, 인내, 기도의 능력,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 복, 안전함, 리워야단, 붉은 줄을 매단 창문(라합), 신앙적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의존, 교회의 본질, 회심의 열매, 숨기고 싶은 이야기, 숨길 수 없는 이야기 등이 각각 1편씩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등이 설교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설교가 하나님 나라 설교라고 볼 수 있다.

설교 본문으로 인용되지 않은 성경은 다음과 같다. 구약에서는 창, 출, 레, 호, 시, 삼상, 삼하, 단, 욥을 제외한 30권이 본문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신약에서는 마, 막, 눅, 엡, 요일, 약, 벧후를 제외한 20권이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지 않고 누락되었다.

구약 본문의 주제를 보면 규례, 계명, 제사장 나라, 짝사랑, 우정, 곤경, 선물, 가정, 인간 관계, 영화, 지혜, 은총, 섬김, 보호, 리워야단, 붉은 줄, 정체성, 의지, 회심 등이었으며 신약 본문의 주제는 마중물, 좋은 일, 인내, 시험을 참음, 사랑, 믿음, 증인, 주의 날, 소금과 빛, 말, 지혜, 겸손, 순복, 비판하지 말라, 비전, 욕심, 부자, 주의 강림, 기도, 은총, 대속, 구원의 은혜, 바른 교회상, 예수의 족보, 성탄 등이었다.

2. 설교 구성의 분석

민중기 목사의 설교는 교의(교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중기 목사의 일 년 설교 본문 가운데 구약은 18회 신약은 27회로서 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약 본문 중 야고보서가 무려 15회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간 측의 임무나 책임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민중기 목사의 2011년 5월 29일자 주일설교를 예로 들어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No1

제목: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본문: 마 6:25-34

들어가는 말(서론)

금은 부의 상징이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라는 말도 생겨난 듯하다. 달려가치는 하락해도 금의 가치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옛날 한국에서는 큰 나무에다 새끼줄을 꼬아 걸고서 복을 빌고 치성을 드리거나 조상을 우상으로 섬겼던 적이 있다. 조상의 은덕 즉 조상이 배운 선행 때문에 그 후손이 잘된다는 잘못된 관습에 젖어 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조상이 아니라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본론

그렇다면 현대의 우상은 무엇인가? 프랑스의 폴리겔(1913-2005)이란 철학자는 자기 논문을 통해 현대의 우상은 이데올로기(이념)와 테크놀로지(과학)이라고 말했다. 그의 지적대로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억명이 숙청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예수님은 한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돈이 가진 능력과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예들 들면 대기업의 유산상속을 놓고 형제간에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 재물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 준다.

이데올로기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테크놀로지 시대로서 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건강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셀폰은 인공위성과 결합하여 위치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기계에 의해 조종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테크놀로지가 우상이 되었으며 하이테크의 등장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하이테크를 통해 번영을 누리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려 해도 아이폰이나 갤럭시폰을 사주어야지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

예수님은 돈이 우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

첫째,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돈을 선택하면 안된다. 돈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둘째, 염려를 멀리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이 옳다 한대로 행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품어서 구원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맺는 말(결론)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참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이 중요하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민중기 목사의 설교 구성은 서론, 본론(삼대지), 결론의 순으로 되어있으며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전통적 방식의 설교였다.

- 대지 1. 주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 - 주해/적용
- 2. 염려를 멀리하라 - 주해/적용
- 3. 하나님을 추구하라 - 주해/적용

여기서 민중기 목사의 다른 설교 2011.08.07자 설교 한편을 소개함으로써 그 구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제목: 비전과 욕심의 차이

본문: 약 4:13-17

서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것, 장사하는 것, 거래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 정죄하시는가?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업하고 무역하는 것에 대해 정죄하지 않는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장막 짓고 무역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운 동역자이자 친

구였다. 고급원단 장사 루디아는 빌립보교회를 세웠다.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솔로몬은 공작과 사자, 상아를 수입하고 금과 은이 지천에 널릴 만큼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였고 무역을 통하여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였다.

사업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사업하는 사람을 질책하고 있는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비전과 욕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비전의 사람과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욕심의 사람은 자기의 뜻을 추구한다.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할 수도 있고 반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목회를 할 수도 있다. 직업의 종류, 시간,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가?’가 중요하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 장소, 머물 수 있는 기간, 사업결정, 목표 등을 자신의 뜻에 결정하는 것이다.

첫째, 그렇다면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자기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근신하는 삶을 산다. 본문에 보면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다. 욕기에서는 그림자, 구더기로 표현한다. 이사야에서는 풀잎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 건강,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둘째, 겸손이냐? 자랑이냐? 겸손함은 비전을 하나님께 둔 자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애굽으로 갔다. 겸손은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겸손은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영적 소비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남는 건 오직 겸손뿐이다.

셋째, 주님께 영광돌린다. 비전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야고보는 행함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게 되면 점점 더 도수가 강해진다. 듣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듣기를 원하나 그 결과는 영적으로 파탄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더라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을 행할 줄 알되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

결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위반하지 않았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도적질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켰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태만함이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좀 더 봉사하지 못하고,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전도하지 못한 것이 바로 태만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림이 없다면 우리의 의지는 악으로 고정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악에 중독되어 인간성마저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회복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여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중기 목사의 설교는 주해와 적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지를 세 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방식을 따르고 있다.

- | | |
|------------------------|---------|
| 대지 1.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 | - 주해/적용 |
| 2. 겸손해야 한다 | - 주해/적용 |
| 3. 주님께 영광 돌린다 | - 주해/적용 |

3. 설교 전달방법 분석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방식과 네 페이지 설교원리 및 시각화의 관점에서 민종기 목사의 첫 번째(No1)설교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구약 성취의 도식으로 살펴볼 때에 구약의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오늘날 전개되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로, 짧지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잠언/경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셋째로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금, 새끼줄, 복, 우상 등)를 사용하는 점이 돋보인다.

다음으로, 민 목사의 설교를 네 페이지 관점에서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인 본문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현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로, 두 번째 페이지의 내용인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황금만능주의와 이데올로기 및 테크놀로지가 신앙의 저해요소라고 설파하고 있다. 셋째로, 세 번째 페이지의 내용인 본문 속의 하나님의 은혜, 즉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 넷째로, 네 번째 페이지의 내용인 우리 세상 속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신앙적 삶의 방향은 잘 제시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베푸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로, 네 페이지 설교에서 강조되는 시각화를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민종기 목사의 두 번째 설교(No2)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예수의 선포방식인 구약성취의 도식 잠언/경구, 이야기/그림 언어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약 성취의 도식으로 살펴볼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연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짧지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잠언/경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각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그림 언어(그림자, 안개, 구더기)를 사용하고 있다.

네 페이지 설교 원리와 시각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특징만 말하고 있다.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현상

만 얘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 은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화와의 연관성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중기 목사의 설교는 예수의 선포방법과 유사점이 없었으며 네 페이지 설교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연관성이 없었다. 이것이 민중기 목사의 2011년 대부분의 설교에 대한 적절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7절 종합 평가

예수의 선포방법과 네 페이지 설교의 전달방법 그리고 네 페이지 설교의 시각화의 관점에서 미주 한인교회의 설교를 살펴본 결과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예수의 선포방법(첫째 구약 성취의 도식, 둘째 감언/경구, 셋째 그림 언어)에 따라 미주 한인교회의 설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섯 교회의 설교자 모두 예수가 전한 방법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였다. 구약의 언약(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 나타나고 있는가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현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짧지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감언/경구의 사용이 매우 적었으며 시각화를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네 페이지 설교의 전달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본문 속 문제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뿐 본문 속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면에는 매우 취약하였다. 세 번째 페이지인 본문 속 은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 세상 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네 페이지 설교의 시각화 관점⁸⁶⁾에서 살펴볼 때 모든 교회가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적지만 그래도 시각화에 대한 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신 방법과 네 페이지 설교의 전달방법에 따라 살펴볼 때

86) 이 논문의 페이지 39-41를 참조하라.

미주 한인교회의 설교와는 많은 차이점이 드러났다.

어떻게 하면 현대의 미주 한인교회 회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Paul Scott Wilson이 제안한 네 페이지 설교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이제 미주한인교회의 설교는 달라져야 할 때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들려져야 한다.⁸⁷⁾ 필자는 네 페이지 설교야말로 인터넷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중들에게 가장 유용한 설교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다음 장에서 네 페이지 설교의 원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 설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87)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7.

제 5 장

네 페이지 설교를 활용한 하나님 나라 선포의 실제

앞서의 논의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과 선포 방식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현대적인 설교법인 네 페이지 설교의 구성과 선포 방식 각각을 살펴보고 (2-3장) 미주에 있는 다섯 개 한인교회들을 표본으로 삼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네 페이지 설교 구성의 관점에서 비평해 보았다(4장). 이번 장에서는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본문 두 개를 정하여 네 페이지 설교법을 적용한 설교문의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절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 본문에 대한 네 페이지 설교의 사례

복음서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온다. 공관복음의 사례는 앞서 Wilson의 네 페이지 설교법에 대해 소개할 때 이미 한 가지 사례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⁸⁸⁾ 여기서는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 본문을 중심으로 네 페이지 설교법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설교제목 ; 거듭남의 축복

설교본문 : 요 3:3-5

주제문장(Major Concern of the Text):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나의 교리(one Doctrine):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다.

88) 이 논문 페이지 34을 참조하라.

청중들의 한 가지 필요성(one Need):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의 이미지(one Image): 회개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세상에서 행할 한 가지 사역(one Mission):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가르치심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자.

서론

오늘 본문 말씀은 밤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간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인 최고의 종교회의의 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은 7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의 시체에 바르도록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근 정도를 선뜻 내놓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유대교의 한 분파인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육적 혈통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하였으며 존경받는 율법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본문 안의 문제 또는 필요성: 니고데모는 메시야를 만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왜 밤에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요한에 의하면 밤은 악함과 거짓됨과 무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언어로서(요 19:39; 11:10) 니고데모는 어둠으로부터 빛이신 예수께로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 년 동안의 연구과정을 마쳐야 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모든 전승 자료와 해석방법, 종교법과 형법에도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4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랍비가 되기 위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예수께 나아와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 상류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이미 예수께서 상류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예수를 한 사람의 선생(랍비)이상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 예레미야, 세레 요한 등과 같은 선지자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선생이란 니고테모의 말이 예수의 신성까지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연 그가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니고테모의 방문의 주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오늘 세상 안의 문제 또는 필요성: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 혹은 건강일까요? 아니면 많은 지식을 소유하거나 노후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현재의 삶을 안락하게 이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간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후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욕구를 더 앞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근거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가르치심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니고테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욘 2:28-29).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삽나이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첫째,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께로 부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지,정,의를 항상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이며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

오늘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거듭났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주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혹은 외롭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양로 병원이나 감옥 혹은 고아원등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전도)과 삶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

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요 3:21)”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들의 이웃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영광과 상급(딤후 4:8)으로 보상되어 질 것입니다.

맺는 말(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듭남과 전도와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고전 4:2)”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2절 고린도전서의 하나님 나라 본문에 대한 네 페이지 설교의 사례

본 절에서는 고린도 전서의 하나님 나라 본문을 중심으로 4페이지 설교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설교제목: 성도의 본분

설교본문: 고전 6:9-11

주제문장(Major Concern of the Text):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하나의 교리(Doctrine): 성도의 삶은 순결해야 한다.

청중들의 한 가지 필요성(one Need):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의 이미지(one Image):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 행할 하나의 사역(one Mission):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 되자.

서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서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여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본문 안의 문제 또는 필요성: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의를 함께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의라고 바울 사도는 지적하면서 불의한 자들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란과 남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도덕적 수준을 정하였으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그들 스스로를 기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멋있고 고급스러운 본차이나 접시에 산해진미가 가득합니다. 이윽고 식사시간이 되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접시 주변에 오물이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의치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음식이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의함을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오늘 세상 안의 문제 또는 필요성: 우리의 삶은 의롭지 못하다.

우리들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면에서는 고린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욕과 세상적 욕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자신을 절제하고 단정하며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을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히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의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고린도 교인들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화와 순결의 삶입니다. 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순결함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란함과 우상숭배 그리고 타인을 비방하고 탐욕을 부리는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정욕을 자제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성결케 하며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

오늘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욕구와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행위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성화의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가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적 순결함과 수준 높은 도덕적 정결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네 페이지 설교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고찰해 왔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까지 해오던 전통적인 설교기법에서 벗어나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교를 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설교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미주 한인교회에 설교의 한 가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1절 논문의 요약

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배경과 신학적 전제들을 살피고 단어적 접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설교하였으며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과 선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과 전달방법 그리고 예수의 선포와의 연결성들을 알아보았다.

제 3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 방법으로서의 네 페이지 설교를 제안하면서 새로운 설교법에 대한 사회학적 이슈들이 무엇이며 네 페이지 설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네 페이지 설교의 구성 원리와 전달 방법 그리고 네 페이지 설교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 4장에서 우리는 표본으로 선정된 다섯 개 미주 한인교회들의 설교를 예수의 선포방식(구약 성취의 도식, 잠언/경구, 이야기/그림 언어)과 네 페이지 설교의 원리 및 시각화의 관점(첫째 페이지: 본문 속의 문제, 둘째 페이지: 우리 세상 속의 문제, 셋째 페이지: 본문 속의 은혜, 넷째 페이지: 우리 세상 속의 은혜 및 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게 하

는)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제 5장에서 우리는 네 페이지 설교 방법을 활용한 하나님 나라 선포의 실재를 제시하되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것들에서 언급된 하나님 나라를 본문으로 삼아 설교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제 2절 하나님 나라 본문에 대한 네 페이지 설교 방식의 실제적 의의와 효용도

Wilson은 “주해와 적용에 움직임(movement)을 덧붙여 감행하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구조(a four-part structure)는 설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성취하셨던 것의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은총의 신학으로 향하도록 해준다”⁸⁹⁾고 주장한다.

네 페이지 설교는 문제와 은혜의 긴장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인간들의 실수와 죄, 허물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며 인간들의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제시함으로써 신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의의와 효용이 있다.

제 3절 미주 한인교회에 제안하는 한 가지 설교 모델

본 절에서는 미주 한인교회에 한 가지 설교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5장에서 이미 제시하였듯이 네 페이지 설교는 문제와 은혜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네 페이지 설교는 통일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 페이지를 따라 이어가면서 설교를 할 수 있기에 설교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설교의 역할은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들이 신자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89) Paul Scott Wilson, *네 페이지 설교*, 21.

필자가 네 페이지 설교를 제안하는 이유는 문제와 은혜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부 록

네 페이지 설교의 예

제목: 성령의 능력

본문: 행 2:1-21

주제문장(Major Concern of the Text):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한 교리(one Doctrine): 성령은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청중들의 한 가지 필요성(one Need):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

하나의 이미지(one Image):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함.

세상에서 행할 하나의 사역(one Mission):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자.

서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전 4:20)”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역사는 제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놀람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어를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유창한 언어로 외국어를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분명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일 것입니다. 성령강림의 역사는 복음을 널리 전파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아래 이루어진 단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본문 안의 문제 또는 필요성: 초대교회는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였다.

오순절은 유대 삼대 명절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예표 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교회의 시작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을 피하여 한곳에 모여 숨어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사람들(1:13-15)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1:4) 따라 성령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성령강림과 역사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 하신 성령 즉 우리의 옹호자, 위로자, 상담자, 능하게 하시는 이인 보혜사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강림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성경을 갈망하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강림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일대 생애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했을 뿐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오늘 세상 안의 문제 또는 필요성: 우리는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면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들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도 함께 섬기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예정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실

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구원의 때 뿐 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강림과 역사.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행 2:42)”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강림 사건은 복음의 확산을 상징할 뿐 아니라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다른 방언(외국어)으로 말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예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

오늘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또는 성령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성도들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든지 자선단체의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요 19:30)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가 진정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못박힘을 당하신 그야말로 진정한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충만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강병도, *호크마 종합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1992.
- 김세윤. *바울 신학과 새 관점*. 서울: 두란노, 2002.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요한복음강해*. 서울: 두란노, 2004.
- 김영옥. “미주 한인교회의 차세대 선교전략.” MATS. thesis,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1998.
- 김용환. *구약원어대조성경*. 서울: 로고스, 1993.
- 송인규. *디아스포라의 현주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4.
- 안병부.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길사, 1993.
- 이선호. *스태판 원어성경*. 서울: 원어성서원편집부, 1993.
- 정형철. *아가페 성경사전*. 서울: 청아문화사, 1992.
- 최한구.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서울: 그리인, 1991.
- _____.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갑인출판사, 1990.
- 트리니티 말씀대전 편찬위원회. *트리니티 말씀대전*. 서울: 달산, 1993.

2. 번역 서적

- Chapell, Brian.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Christ 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김기제 역. 서울: 은성, 2003.
- France, R. T. *마태신학 (Matthew: Evangelist and Teacher)*. 이한수 역. 서울: 엠마오, 1998.
- Greidanus, Sidney.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서울: 여수론, 1998.

- Hagner, Donald A. *히브리서 총론 (Encountering the Book of Hebrews)*. 이창국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5.
- Jones, Ilion T. *설교의 원리와 실제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정장복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 Kasemann, Ernst. *국제성서주석: 로마서*. 박재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Ladd, George E. *신약신학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이창우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Llyod-Johns, D. Martin.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Long, Thomas G. *증언하는 설교 (The Witness of Preaching)*. 이우제, 황의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MacDonald, Gordon.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Michel, Otto. *국제성서주석: 히브리서*. 강원돈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Perry, Lloyd M. *현대인을 위한 성서적 설교 (Biblical Preaching for Today's World)*. 박명홍 역. 서울: 은혜출판사, 1994.
- Ramm, Bernard. *성경해석학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정득실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 Robert H Mounce. *요한계시록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Revelation)*.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 Robinson, Haddon and Craig Brian Larson.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전의우 역. 서울: 두란노, 2006.
- _____. *성경적인 설교 준비와 전달 (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주승중 역. 서울: 두란노, 2006.
- Stott, John R. W. *설교자상 다섯가지 (The Preacher's Portrait: Some New Testament Word Studies)*. 문창수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7.
- Stott, John R. W. *현대교회와 설교 (Between Two Worlds)*. 정성구 역. 서울: 생명의샘, 2008.

Wilson, Paul Scott. *네 페이지 설교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주송중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8.

3. 외국 서적

Bailey, Raymond. "Do You Want Healed." In *Best Sermon 3*. Edited by Cox,
James.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Publishers, 1998.

Buttrick, David.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PA: Fortress, 1987.

Child, Brebard 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hristian Bible*. Minneapolis, MN: Fortress, 1992.

Cox, James. *Best Sermon 3*.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90.

Duffet, Robert G. *A Relevant Word: Communicating the Gospel to Seekers*.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95.

Farris, Stephen. "Preaching Law as Gospel: Some Reflection on and from Psalms
119." A Paper Presented in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Homiletics in Toronto, 1998.

Guthrie, Shirly. *Christian Doctrin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onx Press,
1994.

Jones, O. C. "The Preacher's Dilemma." In *Outstanding Black Sermons*. Edited by
Smith, J. Alfred.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76.

Klingsporn, Gary W. *The Library of Distinctive Sermons II*. Sisters, OR: Questar
Publisher, 1996.

Mays, James L. ed. *Harper's Bible Commentary*. San Francisco, CA: Harper, 1988.

Noren, Carol M. *The Woman in the Pulpit*.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Steumpfle, Hermans G. *Preaching Law and Gospel*. Philadelphia, PA: Fortress,
1978.

Sunday, Billy. "The Devil's Boomerangs." In *Twenty Century of Great Preaching
VII*. Edited by Fant, Clyde and William M Pinson. Waco TX: Word

Book, 1971.

Taylor, Babara Brown. *Gospel Medicine*. Boston, MA: Cowley Publications, 1995.

Tolkien, J. R. R. "On Fairy Stories." In *Essays Presented to Charles William*.

Edited by Lewis, C. S. Grand Rapid, MI: William Eerdmans Publishing Co. 1995.

Trott, Mark. "The Sure Sign of Status." In *Best Sermon 1*. Edited by Cox, James W. San Francisco, CA: Harper and Row Publishers, 1998.

Tse, Esther. "Celebrating Christ's Mission." In *Best Sermon 3*. Edited by Cox, James. San Francisco, CA: Harper and Row, 1990.

4. 인터넷

"미주 한인수 급증." *미주한국일보* (2009년 12월 30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568422> (Accessed October 5, 2011).

"미주한인교회수 줄었다." *미주한국일보* (2008년 1월 9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426182> (Accessed October 5, 2011).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 <http://www.lagunamc.org>.

선한목자장로교회 홈페이지(<http://www.sunhanchurch.com>)

얼바인침례교회 홈페이지. <http://www.irvinechurch.com>.

은혜한인교회 홈페이지, <http://www.gracemi.com>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홈페이지. <http://www.kcmusa.org>.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http://www.chunghuyn.org>.

Vita of
Young Uk Kim

Present Position:

Immanu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10/09/1948

Martial Status: Married

Home Address: 5201 Lincoln Ave #246 Cypress, CA. 90630

Phone: 714)399-6323

Denominati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West-south Presbytery

Ordained: March 1998.

Education:

B. A.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M. Div. Azusa Pacific University

MATS.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ersonal Expreience:

1999-2002 Immanuel Korean Church - Senior Pastor.